3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이자가 오르면 오른금리로 내립때는 작용금리로!
●교육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각종한 대출서비스 제공
문의안내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8월 1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법은 여래의 몸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만덕을 갖춘 보배이다

〈대승기신론소〉

법회 안내

광도사 (02)979-5183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경전읽기 매주 금 오전10시

옷산 불광사 (02)359-5367
거사불자법회 매월 둘째주 일 오전10시30분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중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대구 보현사(053)254-4966
신장기도 매월 1일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
관음재일 매월 24일

부산 해광정사(051)866-7772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중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충북한마음선원(0446)877-0462
정기법회 매월 첫째, 셋째 주 일 오전 10시30분
한마음요잔공부 화 오전10시30분
정진법회 매월 초하루 보름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법회 매주 수 오후7시30분

인천 연화정사 (032)873-1059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4시
일반신도법회 일 오전10시30분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비룡 노스님이 50년전 수행한 금강산 마하연을 저멀리 손짓하고 있다. 96세 노구에 죽장을 짚고 허위허위 달려온 노스님의 애틋한 그리움이 휴전선 철조망을 넘어 손에 닿을듯한 금강산으로 펴져가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저 구름아래 마하연이…"

비룡스님 북쪽 금강산 바라보며 '할'

"백두산 호랑이가 울고
금강산 사슴이 춤을 춘다."

광복절을 일주일 앞둔 지난 8일, 비룡(95세, 월정사 조실)선사가 최북단 고성 통일전망대를 찾아 금강산을 향해 게송을 읊고 할(喝)을 했다.

처럼처럼한 선사의 일갈을 산천은 알아들었을까? 내리던 폭우가 멈추고 구름이 걷히더니 금강산 자락이 하나 둘 자태를 내보였다.

금강산 마하연에서 정진하던 스님은 해방되던 그 해에 행각의 길을 떠났다. 그리고 이날 50년만에 첫 금강산 나들이를 했다. 시간이 흐르고 공부가 깊어지면서 초발심 수행터가 생각나건만 갈 수 없는 땅이었기에 아예 휴전선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하연(摩訶衍).

의상스님이 부석사를 지은 뒤 창건(676년)한 화엄십찰의 하나로 사(寺)나 암(庵)이 붙지 않은 유일한 절. 비로봉과 일출봉 사이에 자리한 금강산의 중심으로 동쪽에 금강산 최대의 석불인 묘길상이 있는 불교성지다.

금강산이란 명칭은 〈화엄경〉에 '해동에 보살이 사는 금강산이 있다'는 데서 연유한다. 그래서일까. 금강산에만 오르면 모두가 출가를 했다.

해방되던 해에도 마하연 선실에는 20여명의 수좌가 화두를 잡고 있었다. 이 가운데 몇몇 스님은 해방후 발길을 헤쳐 남으로 왔으나 모두가 입적하고 말았다. 다만 조계종 전 종정 서암스님만이 비룡 노스님과 반세기 넘는 도반의 우애를 나누고 있다.

"부처님 법이 흥해야 나라 흥하고 통일도 된다"

"해방이 되고서 불교정화가 시작됐어. 그렇지만 잘 됐다고만 볼 수는 없지. 욕심밖에 남은 것이 없으니 말이야. 한마디로 싸움의 연속이었어."

'불가(佛家), 속가(俗家)할 것없이 예의범절이 무너진 것이 더욱 안타깝다'며 노스님은 지난 50년을 회고한다.

그러면서 "부처님법이 흥해야 나라도 흥하고 통일이 된다"며 "불자라면 모름지기 계를 지키고 화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비룡스님이 마하연 도감시절, 이곳 통일전망대가 있는 고성에 사찰 소유의 농지가 있었다. 해마다 가을이면 겨울 양식을 받으러 스님들이 이곳으로 내려왔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출발하면 고성에서 점심을 먹었으니 한나절 거리다.

건봉사, 낙산사, 명주사에서 각각 하룻밤씩 묵으며 걷다보면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하고 계시는 은사 한암스님을 뵐 수가 있었던 초발심 수행터 마하연.

노스님은 다시한번 힘끗 비로봉을 스쳐보시더니 이내 외면해 버리고 만다. 그리고선 옆에 있던 어린 아이의 손을 잡으며 웃어보인다.

"너 보러 여기왔어."

통일전망대=이준엽 기자

"고려대장경은 신수장경의 모체"

日경도 불교대 아미타경등 봉안…동국대서 기증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보 32호인 해인사판 고려대장경 인출본 아미타경 1권과 모조반야심경 1관이 일본 경도불교대 도서관에 봉안하게 돼 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자매대학인 일본 경도불교대에 고려대장경을 전달하는 봉정식을 지난달 31일 정각원에서 봉행했다. 이날 봉정식에는 일본 경도불교대 다끼하시 고지학장을 비롯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교수, 직원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봉정식은 지난 5월 학술교류차 방일했던 이사장 녹원스님에게 경도불교대측이 일본 신수대장경의 모체가 되는 고려대장경을 신축도서관에 봉안하기를 희망해옴에 따라 이루어진 것. 고려대장경은 97년 완공되는 1백만권 소장규모의 경도불교대 신축도서관에 보관된다.

광복 50주년을 맞는 올해 특별히 일본 경도불교대학장이 직접 와서 신수대장경의 모체인 고려대장경을 모셔가 불교대 도서관에 봉안하는 일은 한일 불교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볼 때 매우 의미있는 일로 주위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일본불교 국내 법인화 움직임

문체부 "신청 늘고 있지만 허가는 없다"

왜색(倭色)불교의 국내 상륙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자리잡은 일본불교단체들의 법인체구성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체부 종무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에 들어 일본불교계의 계파인 종교단체들이 국내에 어느 정도 조직기반을 갖추면 종교법인을 설립키 위해 국내인을 앞세우는 등 편법으로 실체를 위장해 신청서를 접수시키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대부분 외국종교단체들이 편법으로 법인화 작업을 추진, 법인허가는 해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종교의 국내활동을 저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교묘한 방법으로 국내 활동 거점을 확보하는 외국종교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는 한 '옴진리교' 같이 사회적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사이비 종교의 근절도 어려울 것이란게 종교학자들의 지적이다.

〈관련기사 2면〉

월주스님 8·15성명

"중도로 통일 앞당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8·15 광복 50주년 및 분단 반세기를 맞아 성명서를 통해 "분단 50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과 사회는 지나친 이기주의, 분열주의에 대해 깊이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성명서에서 "민족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의 염원을 달성해야 하는 소명을 안고 있는 남북 당국은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부처님의 중도와 화쟁사상을 기본으로 화해와 신뢰를 회복, 교류를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앞당기자"고 촉구했다.〈성명서 요지 3면〉

본사 사령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
한형조(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논설위원 위촉

이윤호
대구주재 기자

〈8월1일자〉

목어

길가에 떨어진 금이나 은이나 그밖의 재물을 주웠을 때는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라고 외쳐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 제것이라 할 경우 그 생긴 모양을 물어 사실임이 밝혀지면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나서는 사람이 없을때는 7일동안 매일 소리쳐 찾아야 한다. 그래도 주인이 안 나타날 때는 국왕·대신이나 고을의 장관에게 맡겨야 한다. 국왕·대신·장관도 그 주인을 못 찾으면 이것을 바른일과 진리를 지키는데 써야 한다.

'정직'을 일깨워주는 〈정법염처경〉의 말씀이다. 비록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전직 대통령 4천억원 가·차명 예금계좌 보유설'이 국민을 우울케한 요즘 이 가르침을 한번쯤 되새겨 보면 어떨까. 그른인가. 금융실명제 실시 2년에 아직도 10조5천억원이라는 거액이 차명으로 남아있다니 다시금 곱씹어 볼만한 가르침이다.

"누구의 돈입니까"

실명제란 무엇인가. 겨짓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 맑고 투명한 사회를 이루자는 제도 아닌가. 이런 뜰을 외면하고 가·차명으로 예금된 거액의 검은돈은 바로 우리사회의 건강지수와 무관치 않다.

비양심의 주인공. 그들은 결코 서민이 아니다.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실이 고급계층의 이런 도덕성 상실에 있다면 지나칠까. 〈정법염처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미안하지만 가·차명계좌의 돈은 공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그리고 광복 50년을 맞은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법구경〉의 말씀을 새겨보자.

'사람들은 집착한 물건 때문에 근심한다. 제몸도 자기것이 아닌데 어찌 재산이 제것일까.'

광복 50주년 특집 : 불교 50년 움직인 1백人 12면

불교 50대 사건 13면

해방둥이 불자에 듣는다 11면

카드한장으로 신행관리 15면

KIA 기아자동차
'94, '95 2년 연속 환경관리 모범업체

엄청난 프레임이 숨어있다!



■2중 구조의 특수 강철 프레임
스포티지의 프레임은 굵고 단단한 2중구조의 특수강철 프레임으로, 충돌 안전성 및 충격흡수성이 탁월하여 탑승자의 안전을 최각적으로 지켜줍니다

프레임은 안전의 기본,
어떤 승용차에도 이런 프레임은 없습니다.
프레임은 바로 차체의 골격! 충돌시 내부에서 차체를 버텨줌으로써 찌그러짐·비틀림을 최소화하여 탑승자를 1차적으로 보호해주므로 프레임이야말로 안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충돌 안전성·충격 흡수력이 탁월한 2중 구조의 특수 강철 프레임으로 특히 오프로드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높은 고갯길이나 험한 산길도 올 봄에는 스포티지로 달려보십시오. 이제껏 보던 것보다 훨씬 싱그럽고 생동감 넘치는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스포티지를 본격 RV(Recreational Vehicle)라 부르는가?
RV란? 출퇴근, 비지니스, 레저 등 차동차에 대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다목적 자동차로, 우리나라에서는 스포티지가 최초의 RV 고유모델입니다. 세계 유명 모터쇼에서도 선진 메이커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RV모델을 선보이는 등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충돌안전성이 뛰어난 고장력강판 ■사륜구동 최초 리어 ABS 브레이크(ABS 패키지 옵션)
■2차 충격을 막아주는 T형 버팀쇠 ■고급 승용차용 더블 위시본식 독립 현가장치(전륜)
■운전자를 보호하는 충격흡수식 핸들 ■도어 임팩트 바 및 논재밍 안전도어

70%는 바다를 건너간다.
Sportage

기분 좋은 뉴스!
1200만원대 스포티지
• 2.0가솔린(SOHC) ₩12,000,000
• 2.0가솔린(DOHC) ₩12,600,000
• 2.2디젤 ₩12,370,000

첨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사 설

대승정신으로 미래 열자

광복 50년, 그간 우리는 단 한차례의 국민적 차원의 반성도 없이 역사의 격동기 속에 몸을 맡기며 살아왔다. 조선시대의 봉건적 잔재, 일제시대의 비굴성, 반공반일체제에서 오는 경직화된 사고, 군사통치의 물신숭배… 등은 전세대의 약폐를 하나도 여과하지 않은 채 계속 새로운 악을 만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전통적인 우리의 윤리감각은 주로 혈연중심의 마을적인 분위기속에서 길러져 왔다. 공업화·도시화 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정'중심의 윤리감, 도덕적 강령은 설득력을 잃었다. 우리는 메마른 정서를 TV드라마 '전원일기'정도에서나 달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엄청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 간염이병률, 자동차 사고율, 알코올 소비량, 범죄의 증가율, 낙태율이 세계적이라는 악의 낙인이 찍혔다. 국민 모두 '잘 살아 보세'의 구호에 장단을 맞추어 춤을 추다 보니 한없이 타락의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변혁의 시기에는 그것에 어울리는 윤리적 자각이 뒤따라야 하는데 우리 불자 자신도 무기력하게 세태의 흐름을 안타깝게 여겨왔을 뿐이다. 심지어는 일부 불교계의 지도자가 권력에 유착하기까지 했다.

역사상 시대의 변혁은 대략 △경제(자원, 에너지) △인구이동 △과학·기술 등 3가지 이유에서 발생해 왔다.

우리는 현재 이들 3가지 변화요인을 동시에 체험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을 했으나 이 부에 어울리는 윤리성 없이 농촌으로부터 도시의 이동이 급격하게 일어났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눈부신 정보화 혁명을 몰고 왔다. 그러나 이들 변화에 대한 마음의 대응은 아무것도 없으며 속수무책의 상태에 있다.

동물은 환경변화에 진화로서 적응한다. 적절한 진화를 할 수 없으면 종은 절멸한다. 인간은 환경변화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적응한다. 새로운 시대에 번영하는 민족은 어김없이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족속들이다.

모든 문화의 기초에는 종교가 있으며, 그것이 국민 민족의 윤리성을 뒷받침한다. 윤리성이 결여된 발전이란 로마의 말기와 같은 타락이다. 한용운 선사는 일제치하에서 전세대의 악폐를 청산하지 못하는 책임이 불자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한국불교유신론」을 썼다. 다가오는 세상을 민감하게 예감하며 민족의 생존을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정보화의 물결은 국제화와 민족화가 극단적인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흘어지고 있다. 범인류적 차원에 통용할 수 있는 보편성은 민족 개성을 자각하며 획득해 내는 힘겨운 작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이다.

A.토인비는 이미 반세기 전에 오늘의 상황을 예측하여 앞으로의 세계문제는 인류가 하나의 고등종교를 가지므로써 가능할 것을 예측했다. 비록 그는 기독교권의 지식인이기는 했으나 그가 희망을 걸었던 종교는 절대적인 유일신이 아니라 전인류적 상호의존관계를 중시하는 포용력 많은 불교적인 종교였다.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민족은 스스로의 원형을 더욱 더 강하게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 인류 모두에게 설득력을 지니도록 승화되어야 한다. 인류를 무시하는 과학·기술과 물질적 풍요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개인만을 위한 배타심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적 상황, 즉 중생이 앓게된 이유, 보살이 대비의 마음을 갖게된 이유가 한결같이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는 윤리성을 외면하는 데서 발생했다.

불자는 광복 50년의 이 시점에서 지난날의 악폐를 반성하여 다가오는 사회적 환경을 승화시키는 대승적 사명을 지녀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왜색 불교

홍 파 스님



해방후 한국불교계는 비구·대처 분쟁 등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승단 일부의 세속화 만연을 비롯 송사에 천문학적인 정재가 들어갔다. 결국 이것은 일제시대 한국불교를 왜색화시키려는 일본의 야욕이 극대화됐던 일제시대로 근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창가학회 등 일본불교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많이 침투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과거불로 여기고 소속 종파의 종조를 생불로, 그리고 일본을 종주국으로 신봉케 하는 등 정교와는 거리가 있는 바 굳이 일본불교를 수

창가학회 등 경계자세를 문화적 예속 극복힘써야

입 신봉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스럽다.

일본은 한국불교가 아직도 근본불교의 가르침과 수행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 '어머니의 종교국'이라고까지 투르고 있다.

오는 10월 제16차 한일불교교류대회가 경주에서 열린다. 한일불교교류대회 초창기에는 일본과의 누적된 감정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동안 서로 교류가 활발해지고 많은 이해가 생겼다.

일본은 우리와 지리적으로는 물론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이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이제부터는 무조건 일본을 경원하거나 피해의식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노력허 문화·학술적으로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증단협 부회장〉

김 대 곤 부장



광복 50주년을 맞아 우리는 먼저 일부 언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해방'이라는 단어에서 우리의 주체성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해방'이란 주인이 노예등을 풀어놔주거나 제3자가 억압받고 있는 노예상황을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빛을 되찾았다는 '광복'의 어휘가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텐데도 말이다. 그런데 이같은 현상이 우리 불교계에서는 과연 없을까.

승용차를 타보면 해외여행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일본여행길에서 사온 교통안전부적

여행객·저소득층에 접근 부적·다도수입 등 반성을

이 심심찮게 눈에 띄고, 일본 사찰과 자매결연을 맺은 국내 사찰의 신행단체가 일본식 다도(茶道)보급에 앞장을 서는가 하면 일본창가학회 등 일본불교가 직접 침식해 들어오는 현상도 있다.

이에대해 무조건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냉철히 반성해 보아야 겠다.

교통안전부적(실상 이것은 불교보다 일본 신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등에서 우리불교도 신행에 도움을 주는 약간의 패션성이 있는 액세서리의 개발이 필요함을 실감해야겠다. 그리고 창가학회의 경우 주로 저소득층을 파고들어가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우리 불교가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지 않거나 심지어 가진 자들을 주 포교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소외시키고 있는지 반성해 볼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뉴스속보부〉

일본불교 침투현황

30여 종파 상륙 의식·전통 왜색화 우려

대체로 불교색을 띤 일본종교의 국내 상륙은 문화적 침투와 국내 불교전통의 왜색화, 민족정신의 잠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미 1백년에 가까운 시간속에 일본 종교는 소리없이 바다를 건너와 국내에는 현재 30여 종파가 뿌리를 내리고 1백만명 가량의 신도를 확보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교의식과 신행에 알게 모르게 왜색이 물들어 납골당, 수자령가, 신종부적 등이 낯설지 않은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국내에 상륙한 왜색불교는 일련정종, 입정교성회를 비롯 다양하며, 독가스 사태를 일으킨 옴진리교마저 국내에 신자를 확보했다는 소식은 국민들을 긴장시키기도 했었다. 더구나 왜색불교는 국내의 군소종단이나 분별력없는 종교인들을 통해서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들어 국내에 상륙해 조직을 갖춘 일본 종교가 법인구성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은 광복 50주년을 맞는 불교계에 자성을 촉구하기에 충분하다. 왜색 종교들은 매우 교묘하게 국내 거점을 확보하고 있어 불자를 비롯한 국내 종교인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달 경북 청도군에서는 "사찰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건축물 설립을 지역주민과 군당국에 허가를 받고 일련정종 교당을 세워 군당국이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제종교통일염원 합동국토순례단에 참가한 일본승려들이 일장기를 상징하는 깃발에 '나무묘법연화경'을 새겨들고 "남묘호랑객교"를 주력하며 국토를 순례해 불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었다.

이렇듯 왜색불교, 일본종교는 불자와 종교인이 방심하는 틈을 타 집요하게 한국에 뿌리 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불교의 전통과 민족문화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한 일본종교 경계는 한국 불교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 론

눈에 안보인다고 역사 달라지나

— 조선총독부 철거에 부쳐



김 용 운
〈한양대 명예 교수〉

서울의 한복판에 한국민을 노려 보는 듯 일제의 상징물이 떡 버티고 있는 모습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증산교의 강증산이 한 말이 생각난다.

"일제가 침략하기 시작하여 벌떼 같은 왜놈들이 우리 마당을 쓸고 길을 닦고 철도를 놓아도 우리는 조금도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들을 부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의 체제가 그대로 영속되지 않는다. 영국은 2천년 전부터 외침(外侵)을 받아왔다. 로마의 3백년 점령, 그 후 앵글로색슨족과 바이킹의 점령, 마지막 침략이 11세기 노르만의 정복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처절한 역사를 당당하게 밝힌다. 오히려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강한 민족성을 자랑하는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역사가 순수하고 고귀해지는 것일까? 물질적인 대상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일은 어린이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성숙한 국민이라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장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왜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지난날 일본의 역사적 발전계기를 제공해온 한국인이 20세기 초에 그토록 쉽게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는가에 대한 반성이다. 2천3백년전부터 한국인은 일본에 벼농사, 금속문화를 제공했다(야요이(彌生)혁명). 4, 5세기경에는 일본 고대국가를 건설했고(국가혁명), 6세기에는 불교전파(종교혁명), 8세기 문화혁명, 명치유신의 존왕양이론(조선주자학)… 등 수천년동안이나 한국은 줄곧 일본에 문화를 전파해 왔다.

그러한 한국민이 20세기 초 하루아침에 일본제국주의에게 유린당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이유를 물고 그때의 사회적인 병인이 완전히 청산되었는가를 살피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마음속 첨탑도 허물어야

19세기말, 산업화의 물결이 전세계를 휩쓸 때다. 산업화 사회는 필연적으로 국민국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씨 왕조는 국민국가와 정반대인 가문국가를 고수했고 강한 가문(혈연·지연)의식이 국민국가의 형성을 방해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 민족은 좌절한다' 조선의 망국은 어김없이 이 법칙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해방이후 한국민은 이에 관한 자성이 없었고 오늘날에도 조선시대보다 심한 지역차별, 가문의식이 판을 친다. 특히 국민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의 책임(Noblesse Oblige)이 요청되지만 불행하게도 역대 대통령에게는 망명 암살 산중은둔… 등의 불행이 이어지고, 자신의 지역·가문의 번영에만 힘쓰다가 좌절한 것이다. 최근에는 4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축재가 거론될 정도이다.

둘째, 심리적으로 일제의 잔재는 곳곳에 남아있다. 심지어 그들이 정치 세력화되어 오히려 해방이후의 권력층에 파고들어간 것이다. 30년 전 한일국교 정상화 당시의 대통령은 "우리는 일제를 말할 시기가 지났다"고까지 무시했다.

지렛대로 삼아야 할 과거

최근 〈추한 한국인〉이라는 책이 일본에서 출판되었다. 한국인의 이름으로 일본의 한국강점을 합리화하는 내용이다. 간사한 일본인의 수작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여기에는 매국적인 한국인의 그림자가 있다. 이등박문과 이완용의 관계처럼 군사정권당시 한·일의 검은 유착이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그 구도가 그대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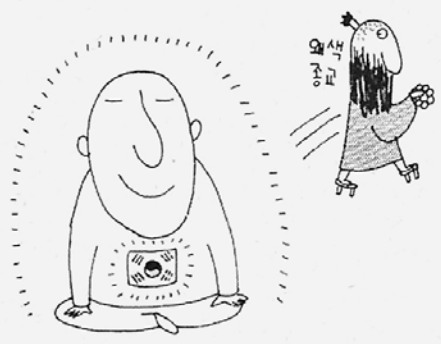
한·일은 지리적·역사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으며, 앞으로 두 나라는 협력하여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역사를 의면한 한·일간의 검은 유착은 한·일의 건전한 관계 수립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건물의 철거보다는 정신적인 일제 잔재의 불식에 힘써야 한다.

지난날 남산의 옛 모습을 되찾자는 명목으로 남산 의인아파트를 폭파했을 때 든 비용이 2천8백억원 이라한다. 이 액수는 교육부가 1년간 사립대학에 주는 보조금을 웃돈다. 외인아파트가 무너지는 광경은 한순간의 구경거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불꽃놀이에 박수치는 어린이가 연상된다. 지금도 각지에서 자연을 훼손해 가며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관국에 무엇이 급하다고 그 많은 돈을 써야 했는지 알 수 없다. 총독부 건물의 철거, 박물관의 건축비… 등에 쓰이는 엄청난 예산을 감안한다면 이 돈으로 우리가 해야할 보다 급한 일이 얼마든지 있다.

잠실근방 三田渡에는 청태종(淸太宗)의 공덕을 기린다는 비석이 있다. 오랑캐의 병력에 못이겨 조선왕이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어 적의 수령을 억지로 찬양한 비석이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한국인은 분통을 억누를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보존해 오고 있다. 그것을 없애도 역사는 사실로 남으며 오히려 그때의 굴욕을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다. 이제는 그것도 중요한 역사 유물로서 존재 가치가 있다.

광복 50년, 우리가 당장 취해야 할 일은 일제에 당한 이유를 이성적으로 되새기며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진정한 해방은 마음으로…

1995년도 후기과정 **원효학당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 동장(銅章) 과정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개강 … 9월 12일
-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 8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사진 2매(3×4)
-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 서류전형 / 개별통보
- 문의처 … 본 학당 사무국 (TEL. 3411-61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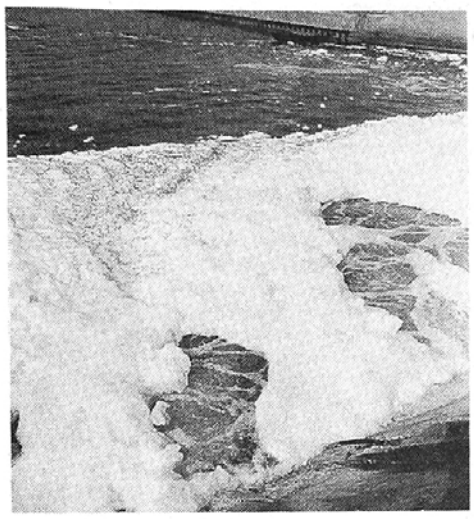
95년도 신규개설강좌
이기영 박사의 〈전등록〉
〈브리하드아라냐카 우파니샤드〉
양형진 교수의 〈불교와 물리학〉

원효학당은
불법(佛法)을 가장 정확하게
회통적으로 이해한 원효대사의 사상에
입각하여 인류의 미래를 개척할
유능한 한국의 지성인을 배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본 학당은 21세기 새로운 문명의 산실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장:이기영 박사/부학장:정병조 박사

- **이기영 박사**의 불교개론, 유마경, 법화경, 임제록, 대승기신론소, 우파니샤드
  정병조 박사의 중관철학, 유식철학, 육조단경, 화엄일승법계도
  교양강좌로 도덕경, 분석심리학, 실존철학 등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출석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본 학당의 **통신강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본 학당에서 개설하는 **상설불교개론** 강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13:30~16:30까지 3개월 코스)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원 효 학 당** 서울 강남구 개포3동 186-1 / TEL 3411-6167~8



◇산업폐수는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류되면 각종 암이나 기형아를 출산시키는 악영향을 준다.

유독물질 함유 생태계에 '치명타'

부처님의 지구 사랑 — 전 재 성 ㉑

산업폐수 한국 하루 6백만톤 발생…수질오염·질병 유발

부처님은 "물의 세계를 향수하는 자는 괴로움을 향수한다"라고 말했다. 청정한 물은 즐거움을 수반하고 즐거움을 드러내고 괴로움을 드러내지 않지만 인간이 사용하고 버린 물은 괴로움을 수반하고 괴로움을 드러내고 마침내 죽음의 원인으로까지 발전한다. 물을 가장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분야는 인간의 욕망의 대상을 대량생산하는 산업체일 것이다. 산업체에 이용되고 버려지는 물이 산업폐수인데, 산업폐수는 인간욕망의 잔해로서 생명체에 치명적인 유독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

1988년 우리나라의 하루 공업용수 사용량은 6백56만톤 정도(핵발전소의 온배수제외)인데 2011년에는 약 1천만톤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중화학공업에서의 생산은 고온, 고압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용되고 있는 82%가 냉각용·세척용으로 사용되고, 펄프·제지공업에서는 제품처리와 세척에 70%가, 원료냉각용으로 20%가 사용되고 있다.

물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제품생산에도 대량의 물이 소모된다. 예컨대 자동차 한대를 생산하기 위해 약 1백20톤의 물이 소모된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가솔린 1ℓ를 제조하기 위해 약 70ℓ의 물이 희생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자재인 강철 1톤당 약 1백톤, 알미늄 1톤당 약 1백90톤, 신문용지 1톤당 약 2백20톤, 석유화학제품 1톤당 약 1천10톤, 인조견사 1톤당 1천8백톤, 합성섬유 1톤당 3천1백60톤 등의 물이 소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물로 만든 자동차를 타고 물로 만든 신문을 보고 물로 만든 합성섬유옷을 입고 다닌다고 보아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용되고 버려지는 하루의 6백50만톤의 물은 모두 유독성인 것은 아니지만, 무단 방류되었을 경우 어떠한 형태로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틀림없다.

91년 3월 대구의 수도물에서 악취가 나는 페놀오염사건으로 온 국민이 떠들썩한 적이 있다. 페놀은 환경처에서 유독물질로 지정한 것으로 음용수질기준의 1백배를 초과했고, 그 밖에 구로공단, 구미공단, 창원공단 등에서도 모두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직접적으로 산업폐수는 아니지만 산업폐기물의 무단 방치에서 오는 폐기물 침출수가 수질오염의 큰몫을 차지하고 있다. 아직 산업폐기물의 절반 정도는 배출업소의 자가매립장에 매립되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다량의 각종 중금속이 함유된 유해침출수를 무단으로 방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나머지는 산업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지만 처리능력이 부족해 상당부분 야산등지에 불법매립하고 있어 거기에서 발생하는 유해침출수는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킨다. 그리고 공장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윤활유는 카드뮴, 구리, 납 등의 중금속과 발암성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데, 이 가운데 1년에 약 58만드럼(37%)이 불법 처리되고 있어, 수질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 최근에 버려진 건전지, 수은전지 또는 폐유리섬유에 의한 지하수 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중금속 등이 용해된 물은 그 유명한 "이타이이타이"병이나 각종 암을 유발한다.

〈한국불교대 교수〉

광복 50주년 기념 성명서

화쟁사상으로 진정한 광복을

원 주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민족분단을 극복하여 통일의 염원을 달성해야 할 소명을 안고 있는 우리민족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을 만든 근원과 파행현실까지 극복과 치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중생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인정하는 진실된 자세의 확립을 통해 세계의 변화에 역류치 않고 새로운 사회통합을 이끌어 낼 때만이 사회와 민족발전에 기여할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특히 민간기구·단체의 남북간 자율교류에 저해가 되는 관계법을 남북한 공히 개정하여 자율교류의 실질효과를 높여 진정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당국은 '7·4남북 공동성명'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남북간에 부처님의 중도와 화쟁사상을 기본으로 화해와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앞당기도록 노력해야 한다.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절(寺)을 오래된 문화유적이나 관광지로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연하게 절에 왔다가 자연스럽게 불교에 감화되어 독실한 불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경주농협불자회장인 김덕수씨는 지난 70년 여름방학때 경주 남산 칠불암에서 '대입 예비고사 준비 학생을 위한 공부방'에 참가하면서 불교이 맑은 어린이들의 눈초리에 감동되어 동참하다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절에 다니게 되었다.

관광이나 등산 또는 휴가여행등, 많은 사람들이 절의 포근한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일행중에 불자가 있어 안내해 준다면 혹 그중에 불교라는 세계에 새롭게 뛰어들 개안자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다.

금주의 주제

이웃과 함께 절에 가자

불자라면 자신뿐 아니라 가까운 친족, 동료, 친구, 이웃과 함께 절(또는 포교당)에 들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만들어 봄이 좋을 것이다. 조용하고 맑은 분위기에서 저절로 불심(佛心)과 수행의 기풍이 몸에 배일 수 있다. 여름을 맞아 시원한 산과 계곡을 찾을때 이웃과 함께 꼭 절을 찾도록 하자.

불교를 잘 모르거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친구나 이웃들을 불교와 친숙하게 하려면 절에 직접 함께 가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이다.

경건한 분위기에 저절로 발심

부처님 가깝게 만나는 계기

와 인연을 맺었다. 한달동안 지도하는 선배 두 분과 후원회원 3명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 4명 등 모두 9명이 새소리를 들으며 공부하면서 아침 저녁 예불을 모시고 바루공양으로 화합을 다지는 동안 불자가 되었다는 것.

서울 명륜동 한수진씨는 두달전 금하선원이 마련한 '차 한잔의 사랑나눔 마당, 소년소녀 가장 및 심장병어린이 돕기 기금조성 일일차 대접' 행사장에 들렀다가 자비행을 펼치는 스님과 티없

신행수첩

왜 삼보에 귀의해야 하나

불교연구원 교리강좌

불자들은 흔히 '삼보(三寶)에 귀의(歸依)한다'는 말을 자주 쓰지만 정작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삼보에 귀명(歸命)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그 실천방법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일은 불교인의 근본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기영)이 17일~23일까지 마련하는 '귀명삼보의 이해와 실천' 주제의 불교기초교리과정은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에서 '공경의 대상(보배)'으로 여기는 삼보는 깨달은 부처님들을 의미하는 불보(佛寶), 부처님이 말씀한 교법인 법보(法寶), 교법대로 수행하는 출가자들인 승보(僧寶)를 의미한다.

또한 '귀의'는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중생의 여러 감관기관이 한 마음(一心)에서 나왔으므로 생명의 근원을 찾아 근본인 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매일 오전 10시30분~12시까지 서울 개포동 연구원 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이기영박사와 동국대 정병조교수가 맡는다. (02)3411-6167~8.

선묘의 아름다운 전설을

법련사 22日 성지순례

심산유곡에 자리한 천년고찰들은 귀중한 불교문화재들과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내려오기 마련이다. 소백산 국망봉 동쪽 봉황산 기슭에 오롯이 자리한 부석사와 소백산 연화봉에 위치해 희망폭포의 절경이 굽어보이는 희방사 또한 그러하다.

특히 부석사에는 국보 18호인 무량수전을 비롯한 다수의 국보·보물급 문화재들이 보존돼 있어 불교문화의 숨결과 의상대사를 사모한 선묘의 불심을 다시금 느낄 수 있다. 희방사에도 창건주인 두운대사와 한 낭자의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장마철도 지나고 여름휴가철도 지난 오는 22일 화요일 법련사에서 부석사와 희방사로 떠나는 의미있는 성지순례에 불자들의 동참 바란다.

(02)733-5322



◇전북 남원 지리산 실상사는 구산선문의 하나인 실상산문(實相山門)을 개산(開山)하면서 창건된 사찰로 보광전을 비롯한 약사전, 명부전 등 부속건물이 많기로 유명하다.

정토를 찾아 지리산으로

문화재보호재단 유적답사

지리산 줄기를 따라 내려온 길 전북 남원엔 이름난 불교유적을 보유한 사찰들이 많다. 특히 실상사와 만복사지는 가볼만 한 곳.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오는 22일부터 1박2일간 우리 문화재의 숨결을 느끼기 위한 문화유적답사를 개최한다.

당간지주와 오층석탑 등이 우아함을 뽐내고 있는 만복사지와 한국 불교사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삼층석탑 등 빼어난 보물들을 보유한 지리산 실상사는 불교유적의 진수를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듯. 마지막날 호남의 대가람 백양사에서는 선계(仙界)속의 고색찬란한 극락보전 등이 보는 이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관람외에도 문화유적에 대한 강의도 있을 예정이며 모집은 선착순 40명. 간편한 복장에 필기도구 지참. (02)266-6938

社告

현대불교와 함께 일할 신문 판촉사원을 찾습니다

현대불교는 불자들이 복잡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하실 수 있도록 전 지면을 신행위주로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불자님들 가정에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를 보급하는 일에 저희와 함께 동참할 '일선 전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시 기	자 격	구비 서류	대 우
신문 판촉 요원	○○ 명	상 시	제한없음. (교계활동 경력자, 가정주부 환영)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소정의 활동비 및 능력급 지급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화(02)737-8881 판매담당자에 문의 바람.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속의 불교 ㊱

장미라는 이름엔 향기가 없다

어느 한 가지에 집착하여 다른 것은 천하다고 깔보는 것—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족쇄라고 한다.: 부처님 말씀이다.

비록 자신의 견해가 명확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굴레가 된다. 비록 자신이 믿는 종교가 명징하다 할지라도 '이것만이 보물 같다.' '이것만이 참이다.' 하여 애지중지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 가르침이 뗏목 같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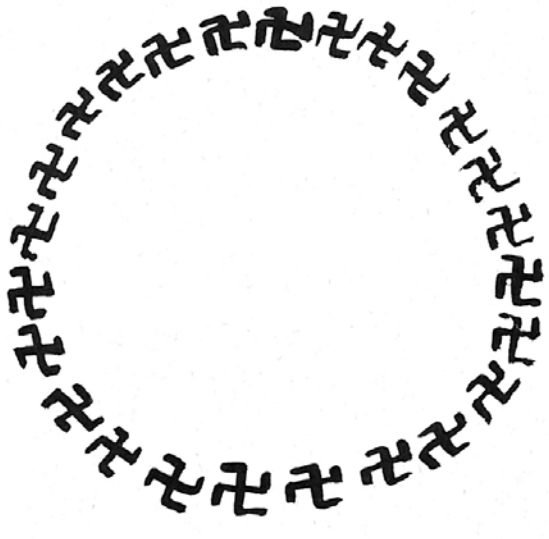
부처님의 저 유명한 뗏목의 비유—강을 건너는 데 뗏목이 아무리 유용했다 해도 그 뗏목을 지고 다닐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 상징하는 것. 그것은 가르침이 비록 수승할지라도 수행을 위한 것이지 집착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하물며 자기의 종교를 존숭한 나머지 다른 이의 종교를 서슴지 않고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면 그것은 뗏목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 뗏목의 노예가 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자신이 믿는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수행하려 하기보다 다른 이의 종교를 '우상숭배다.' '미신이다.' 하며 비난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가르침의 노예가 된 경우이다.

불교중흥에 크게 기여했던 인도의 아쇼카 대왕은 다음과 같은 칙령을 바위에 새겨 놓도록 했다.

「…남의 종교를 존중하면 자기가 믿는 종교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내 종교를 찬양하기 위해 남을 헐뜯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헌신하려던 제 종교를 더럽히는 사람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는 이 아쇼카 왕의 경구를 귀담아 들어야만 할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찬양과 헌신이 지나쳐 결국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는 줄 모르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종교란 무엇인가. 불교·기독교·천주교…라는 이름이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진리의 가르침'을 그 내용으로 하기에 종교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름으로서의 불교, 기독교…를 두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며 다투는 것은 예컨대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과 국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서로 장미가 좋다, 국화가 좋다라고 다투는 것과 진배없다.

국화도 꽃이고 장미도 꽃이다. 아름다움과 향기는 꽃에 있는 것이지 국화라는 이름, 장미라는 이름에 있는 게 아니다.

종교를 믿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지 이름을 따르는 게 아니다.

이름엔 진리가 없다. 진리엔 이름이 없다. 진리는 오직 진리 그 자체이다. 고로 '불교'라 함도 이름이다. 참으로 불교를 배우고자 하면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서의 불교를 알아야 한다. 그게 부처님께서 누누히 당부하신 도리이다.

다 같은 사람이면서 우리는 고향 사람, 학교 동문, 같은 성씨…등, 이름따라 패를 가른다. 영남·호남, 한국인·일본인, 백인·흑인…, 그렇게 가르고 또 가르다가 급기야는 내 종교, 네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 쪼갠다.

종교가 이름·상표로 전락할 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줄 뗏목은 유실된다.

부처님 말씀을 좇아서 이름에 얽매이지 않는 게 불법공부이다.

협찬: 유석현·태용례

"쌓인 업 참회할 수 있어 기뻐"

신부전증 환자에 신장기증 지현스님



"속가때나 행자승 시절에도 늘 생각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나의 장기 일부를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에게 이식해 그 사람의 삶이 소생한다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로서의 조그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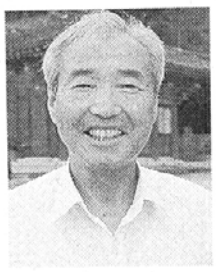
지난달 27일 28세의 만성 신부전증 남자 환자에 자신의 신장 하나를 이식해준 지현스님은 신장 기증의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지현스님은 지난 4월 초파일 경남 울산 동국병원 사회사업가 이은주씨에게 가능하면 젊은 사람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끝에 한 사람의 생명을 소생시키게 된 것.

지현스님은 올 3월 통도사 부방장 청하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현재 사미계를 수지한 초보스님(?). "이번 이식수술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이 참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몸이 한결 가볍다"는 스님은 퇴원(부산 개금동 백병원 621호)후 통도사로 들어가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근 기자〉

"옛 스님들 규율 서릿발 같았어요"

금산사 32년 지킴이
이 승 민 사무장



"30여년전 처음 금산사에 왔을 때만 해도 한겨울만 되면 찾는 이가 드물어지고 쌓인 눈위에 호랑이 발자국만 찍혀있는 깊은 산골이었지요."

지난 1964년부터 금산사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금산사 터줏대감 이승민 거사(72).

전국 사찰 사무장중 최고령일뿐 아니라 가장 오랜 근무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 64년 건강이 안좋아 친구 권유로 금산사에 휴양차 온 그는 손이 부족한 금산사 경리 일을 보게된다. 처음엔 산사가 답답하고 아무런 재미가 없어 떠나려다가 스님들이 3개월만 있어 보라는 만류에 3개월이 32년이 되어 버렸다.

예전 스님들은 신문·편지 같은 것은 절대 보지 못하고 밥이 질면 3천배를 하는 등 규율이 서릿발 같았다고 소개하는 이승민 사무장은 그때 스님들은 쌀이 없어 죽 먹기를 다반사로 하고 무명 승복을 여러번 기워입었다고 회상하며 요즘 스님들의 여유있음(?)과 비교해 보기도 했다.

"사찰 종무원들의 임기와 생계를 보장해 주고 재량권도 주어야 할 것"이라 말하는 그는 그래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사무장으로 들어올려고 하며 특히 본사 사무장일수록 '노하우'가 필요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금산사=이경숙 기자〉

교차로

태아영가 위한 천도법회



자우스님(쌍문동 금강사 주지)은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출간과 함께 22일(오전 10시)부터 49일간 금강사에서 '태아 영가를 위한 천도법회'를 봉행한다.

(02)993-3744

''나눔의 집' 위원장 맡아



시현스님(조계종 문화사회부장)은 지난 1일부로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보금자리 '나눔의 집' 건립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빼앗긴 조국…' 특별 자료전



남현스님(한일문제연구원장)은 오는 19일까지 대구 동아쇼핑 5층 전시관에서 광복 50주년 기념 '빼앗긴 조국 끌려간 사람들' 특별 자료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자료는 정신대 관련등 총 4백여점.

백중맞이 노인잔치 열어



법경스님(능인정사 주지)은 지난 10일 백중맞이 노인 잔치를 마련, 성동구 6곳의 노인정을 돌며 3백여 노인에게 떡, 음료, 과일 등을 공양했다.

인도철학회 새 회장에



이기영박사(한국불교연구원장)는 지난달 24일 인도철학회의 '회장 추대 및 임원 보강'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에 추대됐다. 한편 원의범 전 회장은 고문에 추대됐으며, 정병조 정승석 이호근 윤기봉 교수가 새 이사에 선임됐다.

국토순례단과 백두산 올라



고은선생(본지 논설고문)은 지난 12일 동쪽나라 국토순례단을 이끌고 백두산 등정에 나섰다. 18일 귀국예정.

인니 대통령공로상 수상



최계월 코데코그룹대표(한국남방개발)가 11일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궁에서 수하르토대통령으로부터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이상은 인도네시아 독립 50주년을 맞아 특별 제정된 것.

임정 청사복원기념식 참석



김종규회장(삼성 출판사)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으로 지난 11일 중국 중경에서 거행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복원 기념식에 참석했다.



신성일·엄앵란부부 해방이후 최고의 배우

KBS - 2TV 서울시민 1천명대상 조사

해방이후 한국최고의 인기배우에는 신성일 엄앵란 불자부부가 꼽혔다.

KBS-2TV '수퍼선데이'(13일 오후 5시30분)는 텔레리서치에 의뢰하여 서울시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엄 부부가 최고의 인기 배우로 선정됐다.

40여년간 영화에 헌신하며 살아온 신성일 엄앵란 부부는 한국영화의 버팀목이 돼왔었다. 신성일 엄앵란 부부는 독실한 불자로 '불심을 생활화 하자'는 의지로 외출할때는 어떤 바쁜일이 있더라도 지장경을 1독하고 나간다고.

엄앵란 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인 아집을 버리고 살아오면서 지름길로 가고싶은 적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불법에 의지하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원〉

배꽃어린이집 원장 취임



권오성 법사(예비역 군법사회장)는 용산구 이태원 '배꽃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임. (02)749-8007

여성불교 교양강좌

김묘주(한국여성불교연합회장)씨는 9월13일부터 서울견지동 회관강당에서 2개월과정의 여성불교교양강좌를 실시한다. (02)738-5586

광복 50돌 기념 '눈꽃' 공연



우봉규씨(극작가)는 지난 11일 광복 50주년 기념작 '눈꽃'을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막을 올렸다.

정신대 할머니 진료봉사
김주영 세란한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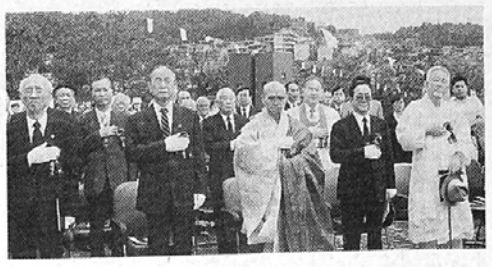
"정신대할머니들은 살아있는 우리의 역사입니다"라고 말하는 세란한의원 김주영 원장.

진관스님과의 인연으로 지난 3월부터 혜화동에 있는 나눔의 집을 찾아 정신대할머니 7분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젊을때 진

"진료 활동은 우리역사 지키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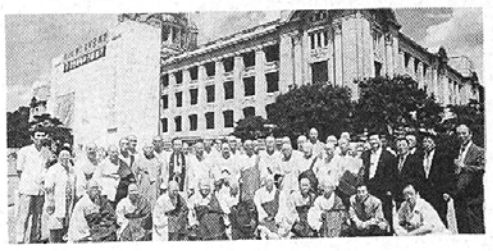
짜 의사가 필요한 곳에서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중 정신대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료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지난 91년 동국대 한의학과를 졸업했다. 할머니들에게 침도 놔드리고, 뜸도 떠드리며 주로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김주영원장은 "할머니들을 오래 사시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역사를 지키는 일"이라 믿고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은〉



독립운동 순국선열 위령 추모대회

광복 50주년을 맞아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한 애국선열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광복 50주년 독립운동 순국선열 위령추모대회'가 지난 5일 서대문구 독립공원에서 봉행됐다.

삼중스님과 순국선열유족회(회장 이종갑)가 주최한 이날 추모행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추모사, 요시무라 일본참회사절단장의 참회사에 이어 추모공연이 진행됐다.



조선 총독부건물 철거 설명회

불교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설명회가 지난 4일 오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 강당에서 개최됐다. 정관장이 직접 설명에 나선 이 모임에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사회부장 시현스님, 문화국장 덕신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박서봉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이홍파스님, 전국 비구니회회장 이광우스님 등 50여스님이 참석했다.



제5회 가산불교학술상 시상식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 주최 제5회 가산학술상 시상식과〈역대고승비문(고려편2)〉 출간기념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동숭동 연구원 법당에서 열렸다. 올해 학술상에는 이종철(서울대강사)·김영욱(고려대강사)씨가 선정돼 지원금 2백만원씩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원산스님, 송석구 동국대 총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



경암스님등 美 한국전 기념비제막 참석

경암스님(워싱톤 보림사 주지)은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톤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 한국전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한국전 휴정협정체결 42주년에 맞춰 개최된 이날 제막식에는 한 미 양국대통령을 비롯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이자리에는 가수 김흥국씨도 동참했다.



◇ 불교교수회원들이 운제스님을 모시고 연화장세계 법당에 모여 경전공부에 여념이 없다.

탐 방
불교교수회

"불법연구에 세월가는 줄 몰라요"

원로·퇴직교수 중심 5년간 원효사상 등 탐구

"요즘 사람들은 원효스님을 신비화시키기만 좋아하지 진면목을 공부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찾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경전 공부를 통해 원효스님의 진정한 도반이 되어 봅시다."

운제스님(전 태고종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교수님들이 둘러앉아 강의에 경청하는 모습이 흡사 옛 서당처럼 느껴진다.

매달 셋째주와 넷째주 오후3시면 어김없이 불교교수회(회장 원의범교수)의 30여명 원로교수들은 무더위도 잊은 채 조계사옆 교연빌딩 4층 연화장세계 법당에 모인다.

셋째주에는 '금강경오가해' 반과 넷째주에는 '금강삼매경' 반으로 나눠 3시간동안 연구와 토론에 여념이 없다.

5년동안 '원효사상' '열반경종요' '대승기신론' '법화경종요' '유심안락도' '원효사상해제' 등을 공부해왔다.

불교교수회는 비불교 전공교수들이 불교를 공부한다는 원력을 세우고 교학에 탁월한 운제스님을 스승으로 87년에 출발했다. 외적으로는 교수불자연합 창립의 모체가 됐으며 내부적으로는 회원순강등을 통한 발표로 연구성과를 다지고 있다.

불교교수회는 "지금껏 공부해온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을 밝히며 "문호를 개방하여 일반불자들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다"고.

원로교수와 퇴직교수가 주축이 됐기에 칠순전후 나이의 불교교수회 회원들이지만 정법을 향한 향학열은 젊은이 못지 않아 보는 이를 감동시키고 있다.

김원우 기자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5년 8월 31일까지

대원불교대학에서는 정법의 기치아래
대중불교를 선도할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주 5일 수업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 및 종교학	완전강독 Ⅰ

■ **특 전 :** 졸업후: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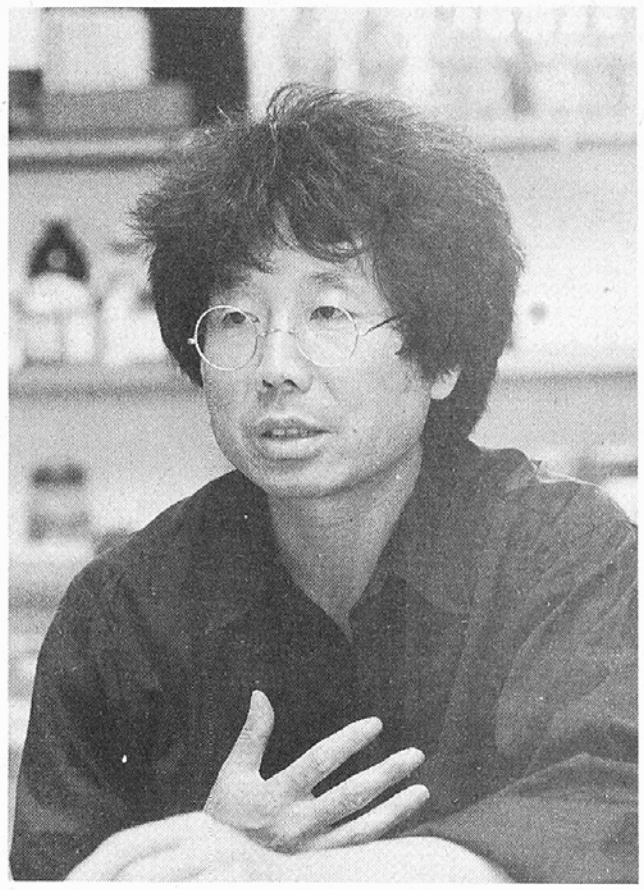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우리 모두 신라의 마음 닮았으면…

산문밖의 禪

설치미술가 전수천 씨



토우이용 설치미술 산업사회에 '자연회귀' 강조

"나 자신을 담아내는 과정서 작품 스스로 탄생"

"토우(土偶) 만들기에 심취하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토우 제작은 마음 씻기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창작의 중요한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

지난 6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1천3백50개의 토우와 산업폐기물, 강물과 숲을 담은 영상화면 등을 30평의 공간에 장업시켜 특별상을 수상했던 전수천 씨의 말이다. 그는 평면 작업과 설치미술, 퍼포먼스등 다양한 기법을 넘나들며 자신의 예술적 주제를 표출하는 '변화속에 살아 있는 예술가'다.

최근들어 작품의 주요 소재로 선택하고 있는 토우는 그에게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토우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다. 신라의 맑은 하늘과 신라인의 투박하고 깨끗한 심성을 말해 주는 토우들이 현대인의 삶의 언저리로 놓여질 때 전해주는 아이러니와 회귀본능들을 강하게 시사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제작 과정이 자신을 수행 시킨다는 점이다. 각기 다른 표정에 몸짓도 갖가지인 작은 토우들을 만들어 가면서 전씨는 스스로의 마음을 씻고 정신을 맑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토우 만들기를 통해 작업 과정에서 자신을 숙성시키는 셈이니까 그 과정이 전씨에게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조상의 지혜와 삶에 대한 멋을 외면한 현대인들에게 자연에로의 회귀를 일깨우는 것이 전씨의 작품세계에서 솟아지는 충고들이다. 설치 작품을 통해 이야기 되는 자연에로의 회귀를 그는 "인간 본성의 발견 내지는 근원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자연에 대한 복귀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조화롭지 못한 것은 언젠가 깨지는 법이니까요"라고 지적하는 전씨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놓여야 할 예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

예술 가운데서도 설치 미술은 특히 그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가 필요하다. 인간과 자연 사이, 인간과 인간사이 혹은 자연과 자연 사이의 좌표를 분명히 잡지 않으면 작가의 의도가 빗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씨는 적절한 자리잡기의 의미를 마음 씻기 공부로 터득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작품을 구상하고 나면 그 작품의 부분과 전체를 함께 마음 속에 갈무리 하고 부분에서 전체로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설치 미술의 순서다.

최근 토우 소재로 작업활동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부분에 집착하면 전체가 되지 않고 전체에 집착하면 부분이 허술해 지니까요."

그럴 것이다. 때문에 전씨는 맑은 정신의 소유자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인간을 위해 고뇌하면서 인간의 삶이 갖는 무지를 질타하기 위한 스스로의 자리를 맑은 마음과 정신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그의 근작중 매우 눈길을 끄는 것이 '흑성 시리즈'이다. 흑성은 무중력 상태의 우주 공간을 떠도는 별이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 매우 닮았다는 것이 전씨의 말이다.

"현대인의 방황은 대개가 풍요로움 속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 방황하는 것이 현대인들이죠. 떠돌이별의 정처 없는 행로를 인간이 그대로 걷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흑성을 주제로 한 일련의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씨의 흑성시리즈는 떠돌다 사라지고 부딪히고 깨어지는 흑성과 인간의 삶을 연결시킨 것인데 거기에는 대부분 수행자를 연상시키는 사람의 그림자가 들어 있기도 하다. 또한 생성과 소멸의 끝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삶의 가치는 원형 철근으로 더욱 강도높게 묘사되고 있다.

전씨는 그러한 원형의 조형물을 만들며 회오리바람이나 정수리, 바닷물의 흐름과도 통하는 어떤 질서를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아니 질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배우고자 하는 생각이 더 강하다고 하는게 더 직접적인 표현일 것이다.

민족의 갈 길 작품통해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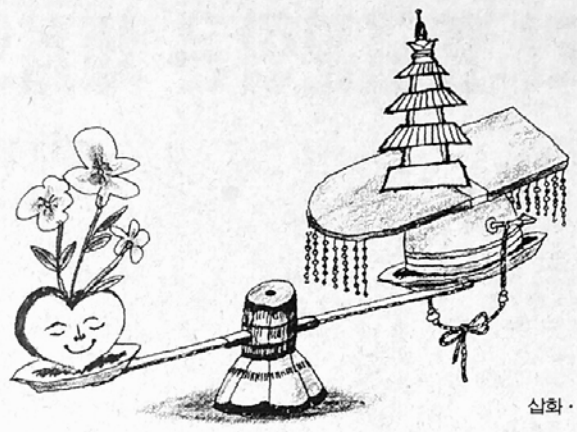
"설치미술은 작가의 정신과 마음을 형체에 담아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든 그 속에는 저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읽고 느끼는가는 역시 감상자의 몫이 되겠지요."

광복 50주년인 올해 광복절에는 그는 DMZ 작업전에도 통일과 새로운 민족의 갈길을 제시한 조각을 한가람미술관 전시장에 내놓았다. 물론 그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만든 작품이다. 또 그는 구조선총독부건물 해체식에서도 일제 잔재청산과 새로운 민족도약을 암시하는 대형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말끔히 씻어낸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 이들 작업의 이유다.

그가 보여 주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진화의 끝은 인간 자신'이라는 명제이다. 과학의 발달과 물질의 발달은 결국 자연 회귀의 꿈을 낳게 되고 자연 회귀의 꿈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란 사실을 그의 작품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을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을 그 작품에 녹이는 과정입니다. 내가 녹아 있지 않은 작품은 남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임연태 기자



삽화 · 이기선

늘 겸손하며 남 이롭게 해야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㊳

공덕(功德)

명예욕은 부질없는 중생의 망심

"엄마 나 백점 먹었어."

"엄마 나 금메달 먹었어."

말들이 참으로 이쁘다. 어린 아이들의 순진한 목소리로, 자랑하고픈 마음은 곱기만 하다. 백점을 받은 아이, 우승의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의 늠름한 모습은 장하기도 하다.

그런데 양무제가 달마스님께 물은 질문은 엉뚱하게 비껴가고 말았으니 한번 짚어 볼만한 일이다.

"달마스님이시여 나는 양나라 제왕으로서 양나라와 불교를 위하여 절도 많이 세우고 탑도 높이 세웠으며, 경론도 번역하고, 스님들에게 일체의 공양을 드렸으니 그 공덕이 어떠합니까." "아니 제왕이시여 아무런 공덕도 없습니다." 양무제가 바라는 것과 달마의 대답은 십만팔천리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의당히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 거기에는 별다른 공덕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양무제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공덕을 바라고 있었으니 어처구니 없는 낭패가 아닌가.

여기에 들어 맞는 해답의 말씀이 있다. 육조단경이다. 한번 살펴 보겠다.

"아무 공덕도 없습니다"

"성품을 보는 것이 공(功)이요, 평등은 덕(德)이니 생각생각 막힘이 없어 항상 본성의 진실묘용을 보는 것이 공덕이 되는 것이다. 안으로 마음이 겸손하여 스스로를 낮추면 공이요, 밖으로 예절을 청하면 덕이다. 또 자성이 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요, 마음이 생각을 여읜 것이 덕이니 만약 공덕 법신을 찾으려면 다만 이에 의하여 지어야 할 것이 참 공덕이니라"고 하였다.

이 말은 육조 혜능의 사상일 수도 있고 부처님의 정법안장에 있는 심수(心髓)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 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면 중생의 욕망이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성품이 맑고 무생법인의 세계에 있다면 이것이 바로 공(功)이 되는 것이다.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평등으로 나타나야 하며 어디 한 모퉁이에 기울고 치우침이 있다면 그것은 평등이 아니므로 6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공이 되는 것은 반야의 슬기가 환하게 밝아져 일체중생의 번뇌를 씻어줌이다. 덕은 평등보시로서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으로 겸손과 자애로움이 갖추어 지는 것이 공이 되고 밖으로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공대하는 예절이 나와야 한다.

조그만 알음알이 재산으로 얼굴을 붉히면서 빗대여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만의 덩어리가 땅 밖으로 벗어나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예절과 공경이 내재된 아름다움으로 장엄되지 아니하면 오만한 인격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단경의 말씀은 참으로 적절한 교시가 아닐 수 없다.

양무제, 그는 위대한 제왕이었다. 제왕의 권력과 위력으로 절을 세우고, 탑을 쌓고, 경을 번역하고 스님을 공대하는 그것은 당연한 업사가 아닌가. 그런데 서천축에서 오신 달마스님을 뵙자 개구일성 공덕의 치사를 받고 싶었으니 허망한 망심의 장난이 아니었던가. 여기에 정문일침(頂門一鍼)을 쓴 것이다. 양무제는 피 한방울 흘리지 아니 하고 혹이 난 것이다.

이웃을 기쁘고 행복하게

달마 그는 무엇을 심어 주려고 하였을까. '바람없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양무제는 보탑의 흔적이 있어야 하고 명예훈장이 가슴에 번쩍거려야만 기쁨을 맞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가 극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한분은 세속적 명예, 한 분은 선가의 마음으로 살려고 한 것이므로 별이의 해답이 아니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엄마 나 금메달 먹었어."

이 말은 천진무구하다. 각고의 승부욕에서 상을 받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세속사에는 모두 승부사가 맴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출세간의 길은 승부사가 아니고 생사를 결단하는 도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 탑경 공대가 아무런 공덕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양무제가 요구하였으니 달마의 해답은 명확하게 갈파한 것이다.

"아무런 공덕이 없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공덕을 바라지 않는 일은 없을까. 이 이치를 알면 달마가 서쪽으로 가는 뜻을 알 수 있고 마음이란 부질없는 것에 매여 살 수 있다는 참다운 공덕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삼화불교대학생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2급 119명 자격취득
92. 8 본교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 중의약대학과 자매결연

3. 특전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5년 8월 23일까지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주소: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

부산불교교육대학
교리반 6기생 모집

본 대학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 양성 교육 기관으로서 교계의 대덕스님·교수·법사님을 모시고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 교리반 6기생을 모집하오니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불자님의 동참을 환영합니다.

1. 모집마감일 — 8월 28일(월)까지
2. 모집인원 — 100명 선착순 마감
3. 교육기간 — 6개월 ➡ 95년 9월 ~ 96년 2월 (매주 금요일 14시 ~ 16시)
4. 입학식 — 9월 1일(금요일) 14시. 본 대학 강당
5. 등록금 — 입학금 2만원(교과서 제공) 수업료 월 2만원
6. 특전 — 교리반 수료자는 포교사반에 우선 입학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 서무과로 문의 바람

부산 불교 교육 대학 전화 : 818-8658
팩스 : 807-7351
서면 진구청 뒷문 성원 주차장 2층 화엄회관

"신라 불교문학은 세계의 자랑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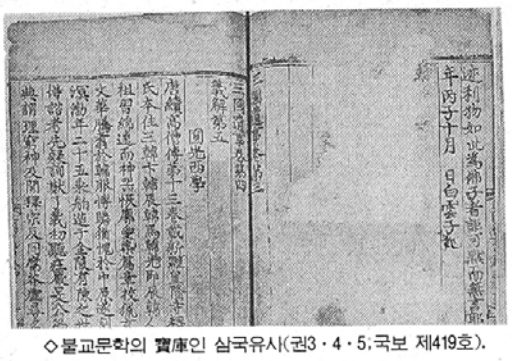
설화 등 '국문학과 불교' 조명
불교漢詩는 현실문제도 반영

고전문학회 학술발표회

한국고전문학회(회장 서대석 서울대교수)가 지난 10, 11일 이틀간 공군사관학교에서 가진 하계 학술발표회는 7명의 국문학자가 '국문학과 불교'라는 단일주제하에 본격적으로 불교와 국문학의 관계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날 기조발표에 나선 서대석교수는 '한국 설화문학과 불교'를 통해 "우리 불교문학은 양적인 면에서는 다른나라에 비해 부족한 면도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결코 손색이 없다"며 "특히 신라 문학은 당시 세계최고의 사상적 깊이를 지닌 그승들이 참여해 이룩한 민족문화로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서교수는 설화문학에 끼친 불교의 영향과 관련, 불교의 국가적 위상에 따른 설화의 전승과 변이를 사회 풍조와의 연관 속에서 구체적 자료를 검토하면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구비설화에 대해서는 불교와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교문학의 寶庫인 삼국유사(권3·4·5;국보 제41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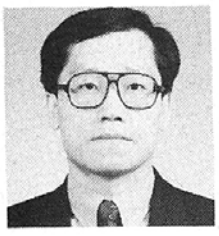
서교수는 설화문학과 불교에 관한 기존 연구 중 방법론상 두드러지는 것으로 △불교 이론에 의해 설화를 해석, 의미를 부여한 김동욱, 김종욱 △금석문등 문헌자료를 통해 불교설화의 전모를 파악한 황패강 △설화를 사회계층과 관련지워 해석한 조동일 △〈삼국유사〉 설화 전반을 기호학이론으로 구조를 분석한 송효섭 △향가의 배경설화를 화엄학과 구조주의 기호학 이론으로 소화, 화쟁(和諍)기호학이란 이론체계를 세운 이도흠 등의 연구를 들었다.

한편 '선문답과 불교한시'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불교한시의 사적 맥락을 조명한 이진오교수(부산대)는 "불교한시는 선시처럼 선의 경지만을 냐타낸 것이 전부가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수행자로서 느끼는 여러 문제의식과 번민도 함께 드러내어 초현실적인 이상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과 시대에 대한 심도 깊은 의식도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발표된 논문은 △초기 소설의 성립과 불교(김종철) △한국시가와 불교(성호경) △삼장 및 쌍화점에 나타난 서동요 양식의 전통과 그 변이 양상(정운태) △사대부작 월령체 전원시가 고찰(송팔성) △〈임화정연〉 연작 연구(송성욱) 등.

조선조 유교중심의 한문학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여건으로 인해 불교문학은 다른 갈래의 국문학에 비해 매우 소홀히 다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기획된 이번 학술발표회는 불교와 설화문학, 초기소설, 한국시가 등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다룸으로서 국문학과 불교에 대한 새로운 연구열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전문학회는 동계학술발표회 주제도 '국문학과 불교'로 정하고 발표논문을 모아 단행본을 낼 예정.

김재경 기자



◇남동신씨.

"원효, 대중중심 居士불교 지향"

남동신씨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통해 주장

원효의 중심과제는 新·舊불교간의 교리논쟁을 지양하는 새로운 사상체계를 수립하는 것과 지배층 중심의 편향성을 극복하는 불교대중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동신씨(한국외대 강사)는 최근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으로 확정된 '원효의 대중교화와 사상체계'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다.

원효의 대중교화활동은 승속불이(僧俗不二)의 거사(居士)불교를 지향했으며, 그의 일심사상에는 인간중심의 세계관, 평등한 인간관, 이타적인 인간관계가 내포되어 있기에 그것은 재래의 무교(巫敎)가 지닌 자연(또는 神) 중심의 세계관, 차별적인 인간관을 극복한 새로운 사유체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 남씨의 설명.

남씨는 "원효의 일심사상이 〈기신론〉에 의해 철학적 토대가 구축되었고, 〈금강삼매경〉에 의해 실천성을 부여받았으며, 최종적으로 〈화엄경〉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능엄경 구결자료집 펴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이영덕)은 최근 고려시대의 구결(口訣)자료를 묶은 한국학자료총서 6집 〈구결자료집 1(고려시대 능엄경)〉을 발간했다.

고려후기 문법사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가능케 하는 8백80여쪽 분량의 이 자료집은 구결연구회원들에 의해 근 10여년간 발굴된 것으로 불교나 유교의 경전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 이 박동섭本 능엄경 구결은 현재까지 가장 이른 시기의 순독(順讀)구결로 고려시대 순독구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경주 국제학술포럼 연
신 평 변호사



"교계 참여 높여 불교 발전 꾀할것"

"명실상부하게 동양학관련 세계최대의 학술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갈 작정입니다."

지난 8일~11일까지 경주보문단지 경주문화교육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사상의 세계' 주제의 제1회 경주국제학술포럼을 주최한 신평변호사(40, 同학술포럼 이사장).

오랫동안 분황사·영일군 대흥사와 인연을 맺어온 신씨는 이 포럼이 불교진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며 동국대교수인 호진스님 법혜스님등과 이 국제포럼에 불교계의 참여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평장학재단을 운영하는등 교육·문화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있다. 〈윤〉

오분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문 부처님께 예를 올릴 때 계향·정향·혜향·해탈향·해탈지견향의 다섯가지 향 공양을 올립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심순석·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답 부처님 전에 향을 하나 피워 올린다 해도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주 삼라만상을 한 찰나에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도 또 남음이 있죠. 그런 까닭에 물질로서의 향이 아니라 마음의 향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향을 하나 피워 올리지만 전체 공동체의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다 구하고 다 두루 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그러자고 우리 모두 마음공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계향이라 하면 부처님 법에 누(累)가 되지 않게, 스승에게 누가 되지 않게, 자기에게도 누가 되지 않게 하겠노라는 마음의 향을 말합니다. 안팎으로 천차만별 다가오는 경계를 다 제 탓으로 돌리며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체와 화목할 수 있고 더불어서 악을 녹이고 선을 여여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절로 계향아닌 계향인 것입니다.

둘째, 정향이라 하면 굳건하게 내 불성자리를 믿고 주장자를 세워 나쁜 게 다가오면 돌려서 놓고 선한 일, 좋은 일이 다가오면 감사하게 생각해서 돌려 놓고 흔들림 없이, 물러섬이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혜향이니 물질계와 정신계를 둘로 보지 않는 것, 너와 내가 제 각각이 아님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도리를 말합니다.

넷째는 해탈향이니 만물만생이 무명에 가려지고 묶여있는 것을 알아 스스로를 다스려 여여하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해탈향아닌 해탈향이지요.

다섯째는 해탈지견향이니 우주 삼라만상, 일체 만물만생을 다 하나로, 한 몸 한 마음으로 느끼고 다스리며, 그렇게 항상 밝아 걸림이 없이 구족한 것을 말합니다.

이 오분향은 오온에 묶인 마음이 일심으로 공해서 돌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또한 마음공부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왜 '무슨 향'하고 한가지로 하지 않고 다섯으로 벌려 놓았느냐 하면 다섯이 다섯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살이를 보면 전문가라는 이들이 있어서 환자의 병은 의사가 고치고 기계고장은 공업전문가가 다루고 천체운행은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다가오는 일체경계를 전부 타파해 나가자면 그런저런 여건에 다 전문가가 되어야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도 성격을 따지고 보면 업보성,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윤회성등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분향이 된 것이지요. 하나로 뭉뚱그리면 마음공부가 됩니다.

미륵불 전파하는 종교가 있는데

문 요즈음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 땅에 미륵부처님이 이미 오셨으니 이제는 미륵불을 믿어야 한다고 권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제 집에도 찾아왔었는데 그 종교(명칭은 임의로 삭제함)와 불교는 어떻게 다르며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한성만·부산 동구 수정동〉

답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고 싶지는 않군요. 그러나 미륵부처님이란 소리에 현혹되는 사람이 있다니 한 마디 일러드립니다.

말씀하신 그 종교는 듣건대 토착종교이며 교주라는 분이 바로 미륵이 하생한 분이라고 주장한다더군요. 아마도 미륵하생경에 근거하여 그렇게 주장하는 모양인데 불경중에 어느 하나를 빌려 쓴다해서 불교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중요한 것,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종교란 이름일뿐 진리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물건파는 가게가 하나 둘이 아니듯이 종교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진리를 설파하고 그것을 생활화하도록 가르친다면 어떤 물건을 이 가게에 가서 사나 저 가게에 가서 사나 뭐이 다를게 없듯이 아무 염려가 없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가게가 다 똑같이 질좋은 물건만을 팔지 않듯이 종교라는 이름에도 천차만별의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교를 선택하는 길은 이름의 벽을 넘어 진리를 따르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라하면 '불'은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말하고 '교'란 생활 그 자체 속에 가르침이 있다는 뜻입니다. 종교가 이런 범위를 벗어난다면 일단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엔 무슨 종말론이니 영생이니 하는 교리를 앞세운 종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의 길, 생명의 도리는 네 마음 속에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요 잘못 가르치는 게 됩니다.

마음도리를 떠나서는 극락도 천국도 영생도 용화세계도 단연코 없습니다. 그점 주요 경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직지사

地藏大聖威神力
(지장대성위신력)
恒河沙劫說難盡
(항하사겁설난진)
見聞瞻禮一念間
(견문첨례일념간)

利益人天無量事
(이익인천무량사)

해설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이여
억겁을 두고 설명해도 다하기 어렵나니
보고 듣고 예배하는 잠깐 사이에

명부전

인천(人天)에 이익된 일 무량하여라

직지사 명부전은 고려태조 14(931)년에 능여대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 현종9년(1668)에 팔상전(八相殿)으로 중건되었다가 다시 명부전으로 이름을 바꾸고 시왕상(十王像)을 봉안했다. 70년대초에 축대를 고쳐 쌓고 단청을 새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각의 내부에는 지장보살과 십대왕(十大王)을 봉안했다. 명부전에는 어느 절에서든 공통적으로 지장보살과 10왕을 봉안한다. 그것은 잘 알려진대로 지장보살은 '지옥의 모든 중생이 성불한 후에 내가 성불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운 분이기 때문이다.

또 10대왕은 인간이 이승의 인연을 마치고 난후 그의 생애를 심판하는 소임을 맡은 왕들이다. 때문에 명부전은 인간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명부전의 명부(冥府)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승이 아닌 저승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아무튼 직지사 명부전도 지장보살님과 10대왕을 모신 곳이며 그 앞기둥의 주련 내용도 지장보살님을 예찬하는 내용이다.

지장보살의 큰 힘은 '항하사'로 상징되는 길고 긴 시간을 두고 얘기해도 다하지 못한다는 앞 두 구절의 의미는 실로 불고적인 수치관이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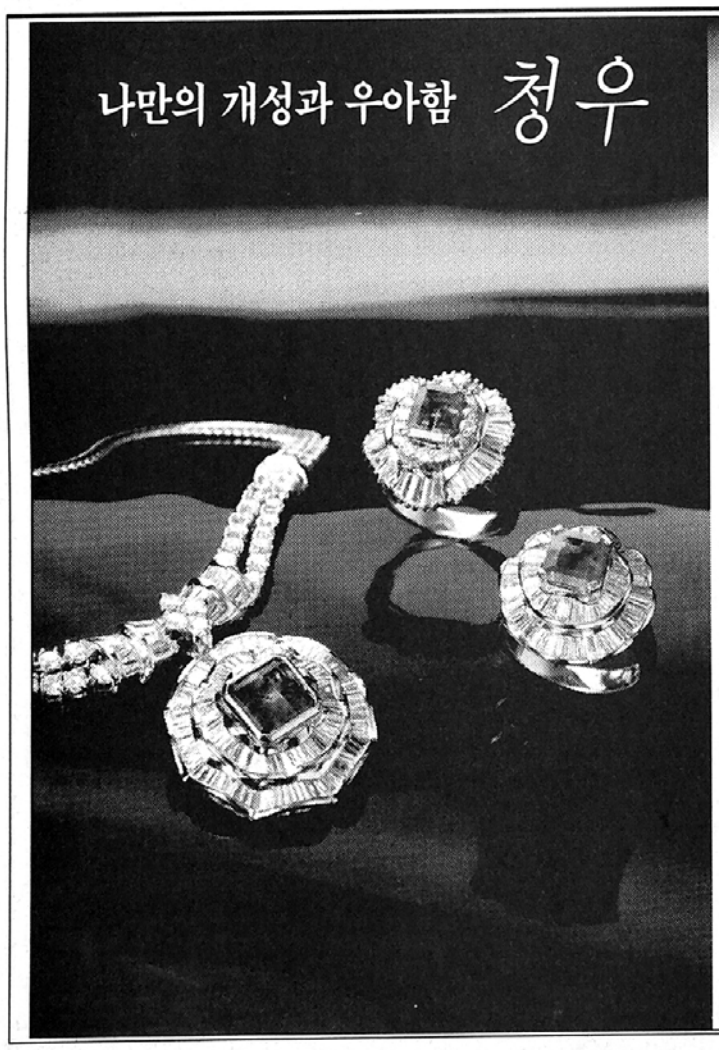
불교에서 쓰는 시간의 단위중 가장 큰 것이 이 겁(劫)이란 것인데 항하의 모래알 만큼 많은 겁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크고 큰 위신력은 인간에게 매우 짧은 시간에 감응을 한다는 것이 뒷구절의 의미다. 즉 지장보살님을 보고 그 이름을 듣고 예배하는 한 생각의 틈새에 이미 한량이 없는 이익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후손의 부귀' '망자의 극락왕생' '소원성취' 등을 두루 포함하는 의미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무량한 지장보살 위신력 예찬



JEWELRY
CHUNGWOO

섬세하고 정교한 제품,
서정적인 주제와 독특한 감성표현,
각개인의 개성을 소중히 하는
디자인.....
청우에서 당신만의 개성을
만나십시오

혼수예물에서 다양한
보석장신구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제품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청우 유자야

전시경력
1971~1972 국전 서양화 부문 입선 20회 21회
1976 파리 니델계산 공모전 입상
1977 파리Cite International des arts 주최 전람회 출품
1978 불란서 전국 사진공모전 출품
1979 불란서 파리 미술대학 미술 석사학위 취득
1979 파리 프리마그 로지에 공모전 입상
1980 파리 화랑 전람회 출품
1977 불란서 예술원 공인 미술작가
1980.6 제 1회 개인전(신세계 백화점 화랑)
1982~1984 한국 공예가회 출품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5-1,2
한양타운 107호 / 우편번호 135-120
TEL 3442~4434~5

월간 대중불교 8월호



정법의 눈
쇠북소리 살아있음의 두려움 / 김종철
특집 해방 50년, 분단 50년
정산 없이 흘러온 업의 과보
통일불사 50년의 반성과 전망 / 장용철
헐어버릴 것과 비로 세울 것
통일이 되어야 조국을 찾지 / 설산·김희균
함께 이루는 청정국토
삼풍백화점, 또 다른 후유증-석면 / 성낙진

오늘의 눈으로 읽는 전통문화
업과 문화 전남 보성 벌교 홍교/김효형·김성철
법당이야기 선운사(2) / 김현준
폐사지를 찾아서
(6)가야산 법수사지 / 김상영·최태선
불교와 민속 (7)솟대와 당간 / 김종대

오늘 여기에서 말씀대로 살기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서강대학교 박광서 교수 / 김희균
수행으로 가는 길(9)/간경
경전, 이렇게 읽는다 / 이제열
생활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8)
바른 말 바라밀(3) / 용타

교리산책/업(7)
악업을 방어하는 양심, 윤회 / 정승석
에세이 보살불교(8)/지장보살(1)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 일지

일상을 깨우는 산문들
수행길의 이런 도반
상식을 뛰어넘는 야승, 적음 / 효림
포교당 일기 풍선껌과 두 아이 / 원욱
한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
조정육·박문숙·변청자

해외 불교 읽기
환생의 땅, 티벳(2) 티벳 가는 길 / 김선정
변화하는 연변, 그곳 사람들 / 소암
봉주우르, 길상 수제비타령 / 지묵

뻗어나가는 불교
포교의 현장 구미불교포교원 / 이춘희
직장불교 BBS교통통신원 불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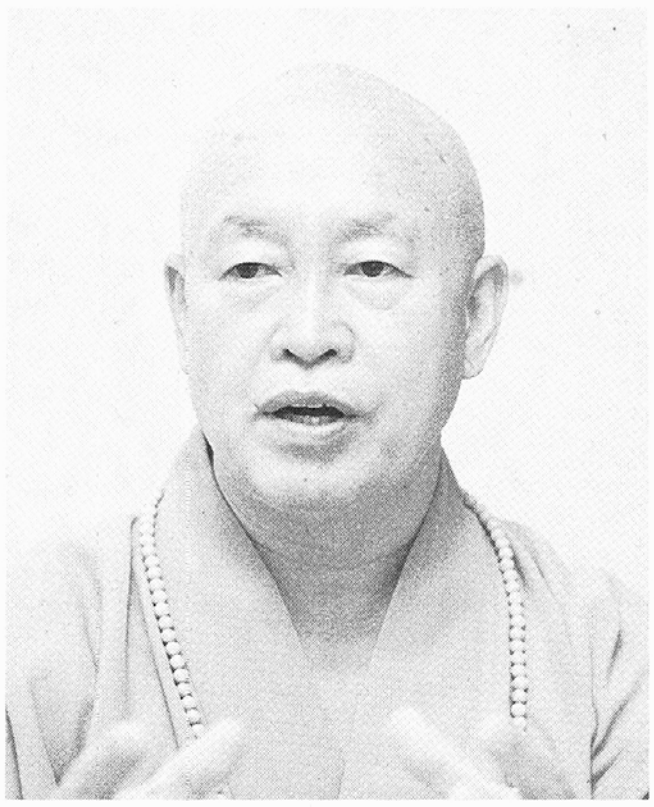
방송과 함께 말씀 익히기
불교방송 교리강좌를 권말부록으로 묶습니다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614

"「36년 恨」 南·北·日 함께 풀어야죠"

'한일 과거청산 운동본부' 산파—재일본 한불련 회장 태 연 스님

수요 인터뷰



다시 8.15를 맞는다. 올해는 광복 50주년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았다. 조국은 여전히 철조망으로 허리 잘린 불구이며, 일제가 남긴 상처는 너무 깊다.

30여년전 일본에 건너가 회생동포 위령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한일과거청산 일본본부'를 결성해 활동할 태연스님을 만나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제가 남긴 아픈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불교도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들었다.

—지난달 26일 결성된 '한일과거청산 국민운동본부'의 산파역을 맡으셨는데, 감회가 남다르리라 생각됩니다.

일본각지 30만 유골 방치

▲여러 어른들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결성대회가 원만하게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운동본부는 학술세미나와 자료전시회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은 물론 인류사회에 인륜을 파괴한 행위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도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의 역할이 클텐데요.

▲재일본 한국불교도총연합회와 조총련계의 조선불교도협회 그리고 일본불교협회와 공동사업본부를 설치, 일본내에서 1백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인류적 차원의 평화운동으로 진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차대전 희생자 위령사업에 일본인들이 동참하는 등 일본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개인적으로 과거사에 대해 죄책감을 나타내지만, 정부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일본인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양심에 입각해 사죄하는 마음을 갖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전체분위기의 방향을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쁘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익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냉철한 운동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30여년전에 일본에 건너가셨는데 지금까지 머물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 갈 때가 28년 전, 그러니까 1968년 2월 이었어요. 한일불교문화교류 방문단으로 간 것이죠. 그때 2차대전 희생자 유골 2300위가 후생성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뿐만아니라 30만에 이르는 유골이 일본 각지에 방치돼 있으며, 후생성에 보관된 유골은 오히려 행복한 편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피가 끓고 가슴이 뛰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어요. 눈물을 머금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저 분들을 편히 잠들게 해줘야 한다고요.

그러나 알몸인 승려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행히 동경민단부인회장 한정매씨가 집까지 내놓으면서 협조해주어 오사까에 달마사(현 보현사)와 고려사를 창건하고 위령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하다보니 어언 30년 가까운 세월을 일본땅에서 지내게 되었군요.

—남북 그리고 재일본 불교도들이 위령사업을 함께 하다보면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유골이 수습되었어도 어디에 안치하느냐가 문제로 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께 묻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모국으로 돌아가길 소리높여 외칠 것입니다. 고인들의 사무친 소리를 우리민족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공원을 조성해 위령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운동본부에서 남북에 제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과 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해방 50년, 우리 민족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에 계신 스님의 감회는 남다르리라 생각됩니다.

▲일제 36년은 7천만 우리민족이 짓밟힌 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감정에만 치우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화라는 화두를 풀기 위한 심사숙고가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한일과거청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쿄 남북불교회의 주도

▲무엇보다도 불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종교간의 세다툼이 되어선 안됩니다. 모든 차별의식을 버리고 화합해야 이뤄낼 수 있는 민족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굳게 해야 합니다.

—지난 7월 도쿄회의도 스님께서 준비했습니다. 불교인의 통일의지를 서로 확인하는 뜻깊은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도쿄회의는 한불연과 조불협이 공동으로 주최해서 한국과 북한 일본의 불교대표들을 모시고 위령재를 봉행하고 남북불교회의를 거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키로 했으나 한국정부의 접촉불허로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남북불교대표가 일본의 중심사찰인 증상사에서 광복50주년 기념 위령재를 합동으로 봉행했음은 무엇보다 의미가 깊습니다. 앞으로의 기본방향을 보여준 일입니다. 공동선언문은 그것으로써 선언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계의 통일운동과 관련, 남북불교가 만나는 것 못지않게 서로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위한 한국불교의 당면과제는 무엇입니까.

▲재작년에 주일총영사관에서 나에게 한불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하겠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남북불교교류의 기틀이 안돼 있는데 방문해도 단지 방문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양했던 일이 있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를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쌓여가면서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또 순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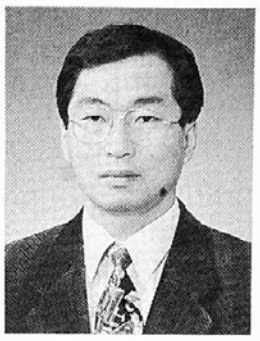
정성운 기자

30년전渡日 위령사업 전개…남북 합동 천도재 주도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해 통일초석 다졌으면"

나의 수행일기

강동완 〈조선대 치대 교수〉



환자 스승삼아 질병없애기 전력

초발심 고교시절 생각하면 무더위도 '싹'

무더운 여름이기는 하지만 창밖의 맑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니 지친 하루가 상쾌해지는 것 같다. 방학이 되었지만 쉴새없이 환자와 씨름하여야 하는 나는 요즘 1학기 내내 강의, 진료, 연구다 하면서 쌓였던 피곤과 함께 마음의 평정이 무너진 것 같아 북적되지 않는 산사에서 조용히 머물고 싶은 심정이다.

사실 산사나 내가 진료하는 이곳이나 마음 정하기에 따라 번뇌처이거나 부처님 자리라 할 수 있지만 衆生心이 훨씬 많아지는 여름에는 사찰의 법당에서 느꼈던 환희심이 그리워진다.

돌이켜보면 나와 부처님과의 인연은 1971년 3월 어느날 광주제일고등학교 1학년 6반 교실에서 시작되었다. 점심시간 후 교실은 늘 신입생들 간의 호기심으로 시끄러웠지만 봄기운으로 나른했었다.

그때 갑자기 교실에 들어오신 불교학생회 선배님들(현 전남대 철학과 이중표 교수, 동국대 불교학과 박경준 교수, 서원대 중문학과 조명화 교수 등)이 칠판에 엄숙하게 '無'자를 쓰고 인연법을 소개하였다.

그것은 사춘기 시절이었던 나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어 초발심을 발동하게 하였고 광주관음사 광주불교학생회 토요법회를 늘 기다리게 하였다. 그때가 나의 인생에 있어 가장 순수하고 즐거웠던 생활불교 시절이라 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은 짜증스런 여름이 되면 불법에 입문했던 그해 여름방학 순천 조계산 선암사에서 3박4일간의 시원하고 환희심으로 가득했던 수련대회를 생각하면서 무더위를 이겨보려고 한다.



무더위의 땀과 정진법회 후의 땀, 사실 땀을 흘리는 모습은 똑같다. 그러나 여름날의 땀은 우리들을 지치게 하지만 1만냄, 1천배 정진하면서 흘리는 땀은 전혀 덥지도 않고 새로운 생동감을 일어나게 하니 아마도 환희심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철야정진 법회 후 환희심은 연꽃같은 아름다움이고 그윽한 자비심이며 함께하는 법우들간 무엇인가를 보시하고 싶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해본다.

매일하였던 바루공양에서도 많은 배움이 있었다. 요즘처럼 바쁜 현대생활의 식사시간에는 정신없이 먹기에 바쁘고 식당이나 가정에서는 남긴 음식 처치에 골머리이지만 최첨단의 식사법이라 할 수 있는 바루공양에서는 남긴 음식에 의한 환경오염이 있을 수 없다.

부처님 법에 의지한 이후 세월이 많이 흘러 치과대학 불교학생회 지도교수를 맡게 되었고 가정의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발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좋은 선배님들의 인연과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을 포교하고, 반야심경을 송경하면서 정진법회에 열성이었던 초발심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법회 참석도 정진도 소홀해져 자신이 정말 부끄럽게 느껴진다.

다행히도 부끄럽지만 늘 환자들을 대하면서 부처님 말씀에 의존하여 인내하고 치료를 통하여 보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환자들은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흔히 분별심이 일어나기 쉽고 새로운 환자를 볼 때마다 평등심을 가지려 하지만 진실로 어려운 노릇이다. 그러나 부처님 법문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새로운 화두를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환자는 '질병에 의한 화두'와 새로운 자극을 건네주기 때문에 도처에 부처님 법문이 있음과 다르지 않으며 서로 통한다면 법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햇병아리 시절이나 경륜이 많다 하더라도 의사는 늘 환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사색하게 된다. 우리같은 의사선생들은 가르침과 진료를 통하여 경제생활을 하고 있지만 환자선생은 도리어 치료비를 내면서 헌식적으로 가르치게 되니 사실 의사들은 환자에게 베푸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더욱 많다. 이러한 때 무더위로 짜증이 나지만 환자가 나를 통하여 기쁨을 느낀다면 법당의 환희심처럼 즐거울 것이다.

올 여름에도 많은 사람이 온통 즐거운 바캉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정말 감성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저 즐기는 것보다 불법의 환희심으로 가득한 법당에서 정진하거나 아니면 모처럼 직장이나 집에서 초발심으로 가득한 보시법회를 열어 더 오손도손 지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해본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주지 임명 공고

현수(실명 최동기)스님을 1995년 7월 21일 부로 탄허불교문화재단 직할사찰 자광사 주지로 추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995. 8. 8

재단법인 탄허 불교 문화 재단
이 사 장 전창열 공고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 (02)273-1239
대표 이 강 화 합장

구 직 광 고

사찰운전기사 · 男

"사찰에서 생활하며 일하고 싶습니다"

※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

연락처 042) 252-5422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 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 :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 (02)735-6795 · 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 해 창

마포 점자 도서실

지회 마포점자도서실은 1990년에 설립되어, 그동안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녹음)도서 대출, 점역 출판, 중도실명자 점자교육사업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교육을 통하여 낙후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현실의 최일선에서 활동해온 시각장애인 복지시설로 함께 하실 회원과 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후원금 동참 안내(월 후원금 3,000원 이상)
—중소기업은행 279-007914-01-017
((사)한국맹인복지연합회)
—상업은행 113-05-176427
((사)한국맹인복지연합회)

(사)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마포점자도서실
서울시 마포구 당원2동 451-1
TEL.(02)338-0180 / FAX.(02)337-7251

탈 종 공 고

한국불교 태고종 종정 법하

사찰명 : 벽수암
소재지 : 경남 거제시 거제면 내간리 607-3
전 화 : 33-4204
성 명 : 박관영 (성종)

본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1995.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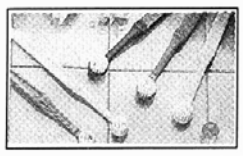
벽수암 성 종 합장

관 음 손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 · 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신변잡화 · 염주 염가 주문제작
비디오 · 카세트 · 성법집 · 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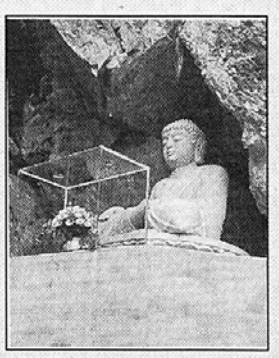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농협억십동지점 096-01-239051(서귤상사)
■전화 (02)556-3076~7 ■팩스 (02)556-3078

사찰인수 증설에 참여하실 분

※ 휴게소 가든 매도분※
• 사찰 부지 및 도로 옆 휴게소 가든
건물 55평(현재 성업중)
• 대지 주차장 300평
신축 모텔 부지 1,000평
매도가 5억원
—가든 휴게소 건물 2·3층 모텔 증축 가능지
—농산물 · 일용생활품 매점 가능지
—주차장 도로부지 120평 포함

연락처 집(조석) 0441-851-3866
사찰(12시) 0441-853-2896

※ 불교신자 · 독지가 환영



법당 신축 협찬자 구함

—충주댐 강변 진입도로변 별장지 요지
:계명산 석굴암 요사채 시설지
• 석굴암 본존 석가모니 불상 7자 높이, 굴 50평
• 석탑 5층탑 22자 높이
• 관세음보살상 15자 높이
• 아미타불 좌불상 5자 높이
• 요사채 2층 방 6
〃 1층 방 3
35평형
—대지 705평 도로 포장 시설지
• 현 3억 5천 투자 시설된 곳 이후 5억 투자하실 분 구함
• 향후 법당, 대웅전 증축, 요사채 및 산신각 증축 계획
• 신설사찰, 신축지 1,000평 내외 양도 가능

※ 사찰 운영할 보살스님, 독지가, 새사찰개발 운영하실 분 환영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24)

雲法師 務學十門 (운법사 무학십문) ⑨ 끝

故 楞嚴 云諸法所生 唯心所現
고 능엄 운제법소생 유심소현
一切因果 世界微塵 因心成體
일체인과 세계미진 인심성체
欲言心有 如空筷聲 求不可見
욕언심유 여공후성 구불가견
欲言其無 如空筷聲 彈之亦響
욕언기무 여공후성 탄지역향
不有不無 妙在其中
불유불무 묘재기중

고로 능엄경에 이르기를 모든 법의 난 바가 오직 마음이 나타난 것이며
일체의 인과와 시방삼세 세계미진이 마음으로 인하여 체를 이룬다 하였다.
(하여)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자 하나 마치 공후(속이 빈 악기의 일종)의 소리와 같아 구해도 볼 수 없고
마음이 없다고 말하려 하나 마치 공후의 소리와 같아 불면 울림이 있나니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오 없는 것도 아니라 그 가운데 묘법이 있다.

故 般舟 云諸佛從心得解脫
고 반주 운제불종심득해탈
心者 淸淨名無垢 五道鮮潔不受色
심자 청정명무구 오도선결불수색
有解此者 大道成
유해차자 대도성

고로 반주삼매경에 이르되 모든 부처가 마음으로 좇아 해탈을 얻나니
마음이란 것은 청정하여 이름이 무구라 오도(인·아수라·아귀·축생·지옥)에 깨끗하여 색을 받지(물들지) 않느니
이를 깨친 이는 대도를 이룬다 하였다.

遵此十門 上行下效
준차십문 상행하효
不倦終之則居佛之敎 可延于後世
불권종지즉오불지교 가연우후세
苟誦不然 祖道必喪
구위불연 조도필상
傾望後賢 覽而警焉
경망후현 람이경언

이상 말한 열가지 문을 준수하여 윗사람은 실천하고 아랫사람은 본받아 게으르지 않고 그것을 마치면 곧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가히 후세까지 펼쳐질 것이나
진실로 그렇지 못하다면 조사들이 일군 길은 반드시 상할 것이라

徐學老 勸童行 勸學文 (서학로 권동행 권학문) ①

후예에게 간절히 바라노니 살펴보고 경책하라.

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道
옥불탁 불성기 인불학 부지도
出家兒 幸尋身離塵網 居於寶堂大廈
출가아 행득신리진망 거어광당대하
切不可以溫飽 自滿其志
절불가이온포 자만기지

옥은 다듬지 아니하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면 도를 이루지 못한다.
출가한 이, 다행히 몸은 육진의 그물을 여의고 넓고 큰 절집에서 살게 되었으니 등 따습고 배부른 것으로써 그 뜻을 채웠다 하지 말라.

少壯之時 不勤學問 不究義理 不正呼吸
소장지시 불근학문 불구의리 부정호흡
對聖前 如何可以宣白
대성전 여하가이선백
士大夫前 如何可以談吐
사대부전 여하가이담토
不學一筆者 文疏 如何寫
불학일필자 문소 여하사
士大夫 往來書尺 如何回
사대부 왕래서척 여하회

젊은 날에(도를)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진리를 깨우치기 어려우며 호흡에 바르지 아니하면(참선·용심을 바로하지 않으며)
성인(또는 성스러운 도) 앞에 어떻게 바로 아뢸 것이며
사대부(또는 선지식) 앞에서 어떻게 한마디 내뱉을 수 있겠는가.
글 한줄 배우지 않고 상서를 어찌 쓸 것이며
사대부의 왕래문답에 어찌 답을 할 수 있겠는가.

龍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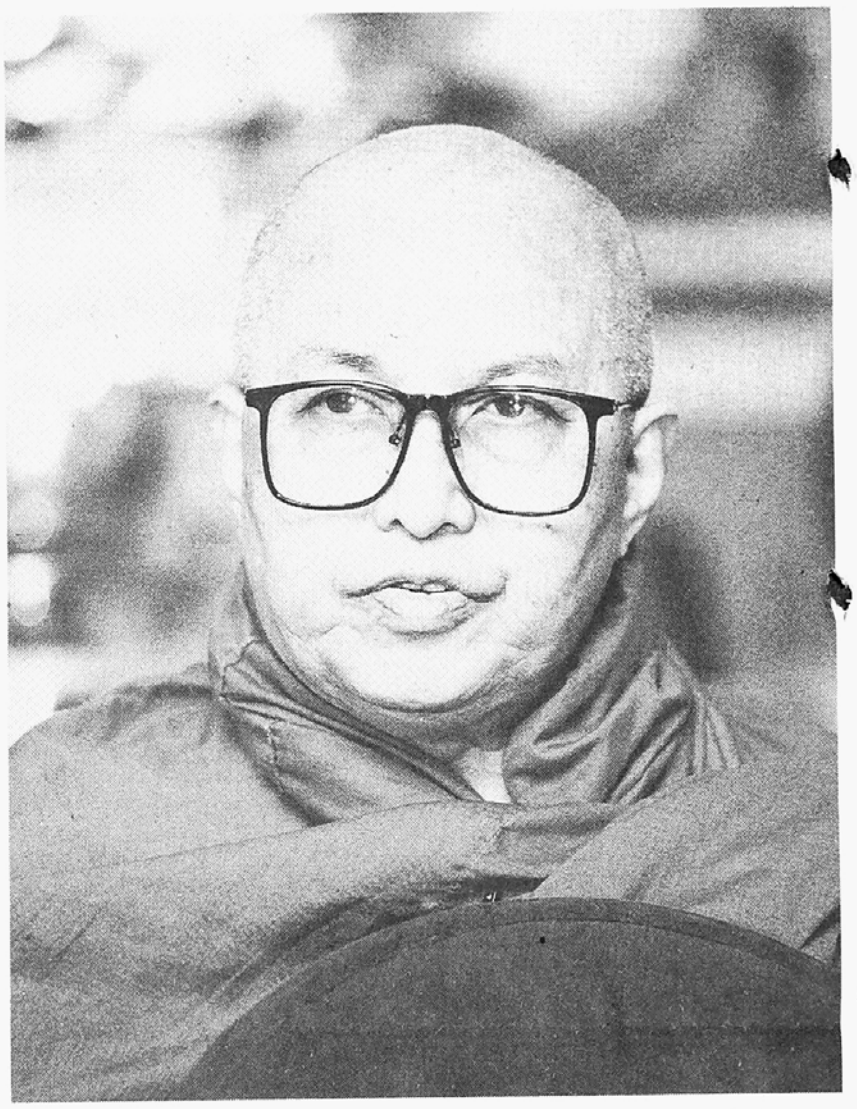
여름 특집 — 해외 고승 지상법석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인과는 마음으로 인하여 체를 이루고
모든 부처님 마음으로 좇아 해탈 얻어

우자나카 스님
〈미얀마 선사〉

우자나카 사야도 스님(65)은 근세 미얀마(구 버마) 대선사중 한 분이었던 마하시 사야도(Mahasi Sayadow)로 부터 명상지도를 받아 30세 이전에 Tripitaka(경·율·론삼장)을 토대로 치르는 국가법사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국비장학생으로 스리랑카에 5년간 유학했으며 지금껏 30년간 외국인을 포함한 수행자들에게 명상지도를 하였다. 양곤시 카바예지역에 체미야 예의타 명상센터를 개원, 일년중 6개월 이상은 미국·영국·호주·태국·말레이시아·일본 및 한국등을 방문, 해외에서 전법및 명상지도를 하고있다.



세상 모든 이는 행복과 평화를 원한다. 그래서 고통의 소멸도 그들을 이끄는 진실한 길을 찾는 사람들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진정한 길을 찾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가 생겨나게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의 하나인 불교는 사람들을 고통의 바다를 헤쳐 가게끔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苦:Dukkha)의 원인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하여 일어나며 세상만물은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원인없이 생겨나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고통을 없애고자 원하셨을때 그 방법을 찾게 되었으며 그것이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게 된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원인을 근절시켰을때 그 어떤 결과도 따르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로써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였을때, 그분은 탐착심이 고통의 원인임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탐착심은 괴로움의 원인이며 탐착심이 있을때 항시 괴로움이 뒤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탐착심은 어디서 오는가. 이 또한 원인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탐착심의 원인이 삿된 견해, 즉 너·나·자신이란 그릇된 견해에 빠져있음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이 그릇된 견해가 괴로움을 있게하는 탐착심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된 견해의 원인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두가지 즉 정신적(精神的)·육체적(肉體的) 모든 현상의 자연스런 흐름에 대한 무지(無知), 즉 무명(無明)이 그릇된 견해를 불러 일으키게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하거나 정신적·육체적 여러 현상의 자연스런 진행에 무지(無知)할때 너·나·사람·영혼·자아 즉 실체(實體)가 있다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적·육체적 진행의 자연스러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으로 무명을 말끔이 씻어내야 합니다.

무명이 원인이되어 그릇된 견해가 생기고 그릇된 견해가 탐착심을 낳게하고 탐착심이 苦海에 빠지게 합니다

'무명이 원인이 되어 그릇된 견해가 생기고 그릇된 견해가 원인이 되어 탐착심이 생기고 탐착심이 원인이 되어 괴로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인과법(因果法)인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육체적 진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써 무명이 사라졌고 무명이 사라지자 그릇된 견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릇된 견해가 깨어지자 탐착심 또한 전혀 생기지 않았으며, 뭇 고통의 원인인 탐착심이 근절되자 괴로움도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괴로움이 그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 즉 멸제의 경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신적·육체적 제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출 것인가에 의문이 남게됩니다. 우리들이 정신적·육체적 여러 현상의 진행에 따른 올바른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이론적(理論的) 분석(分析)이나 생각, 또는 선입관(先入觀)없이 명쾌한 주의력(注意力)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예를들면 우리 신체(身體)가 뜨거움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이 뜨겁다라고 관찰해야 하며 아픔을 느낄 때나 즐거움을 느낄 때에도 있는 현상 그대로 '아프다' '즐겁다'라고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의 감정에 주의력을 잃지않고 실제 흐름을 관찰해야 하며 전체적 혹은 각각의 정신적·육체적 현상의 진행에 따라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관찰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인즉 전체 또는 각각의 현상에서 자연적 본성(本性) 그대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바른이해를 토대로 무명이 제거되었을때 정신적·육체적 진행속에서 사람이니 영혼이니 하는 그릇된 견해를 갖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탐착심도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탐착심을 완전히 정리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지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정신적·육체적 흐름에 대한 관찰, 즉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

2천 5백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금강경〉은 다이아몬드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다!
'그대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우는 인생의 큰 스승
오쇼 라즈니쉬! 그만의 독특한 깨달음의 언어와 강의법, 탁월한 삶의 인식으로 '우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운다.
어떠한 집착도 번민도 없는 무상도의 세계, 구름 너머 저멀리, 깨달음의 발으로 인도하려는 그의 노력이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한다.
오쇼 라즈니쉬! 그는 잠초가 무성한 법구경이라는 밭을 완전히 갈아 엎는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는 그의 법구경 강의를 통해 고타마 붓다의 시대로 돌아간다. 스승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깨달음의 언어, 방금 건져올린 물고기처럼 생동감 넘치는 삶의 지혜, 그 무한정의 감동이 우리를 압도한다.



법구경 (上)(下)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전2권 / 각권 값 6,500원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112 가지 명상비법 무삭제 완역공개
인생을 무덤덤하게 살 것인가? 황홀하게 살 것인가?
목마른 영혼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고민이 없이 삶에의 무지와 무관심, 무감각에 빠져 버린 메마른 의식과 안일한 삶의 태도에서 이젠 깨어나십시오!
인도 5000년의 지혜 「비그아나 바이라바 탄트라」
국내 출판 사상 최초 완역본!



탄트라 비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전4권 / 각권 값 6,5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를 아십니까?

이 존재들을 모른다면 지성인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인간 정신의 가장 차원 높은 지적 유희가 바로 선(禪)입니다.
이 존재들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당신은 초범입성(超凡入聖)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조가 당신을 만난다면 그 즉시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이고,
조주는 그 남은 몸뚱어리를 부처의 몸으로 조각할 것이며,
임제는 부처의 머리를 가져다 그 몸에 붙여줄 것이다.

임제 RINZAI 고기를 통하여 신(神)에로의 황홀의 다리 불리우는 임제선사의 생생한 육성의 기록!

조주 JOSHU 이것이라는 동양의 로부터 붓다를 조각해 내는 훌륭한 장인정신의 소유자 조주의 선과 명장의 세계!

마조 MATZU 달마대사의 거보(巨步)를 앞지른 마조선사의 빛나는 족적!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각권 값 5,000원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36 대표전화927-2831 팩스924-3236

해외 고승 지상법석

여름 특집

고통의 원인 소멸 돼요"

번뇌를 벗기위해서는 마음을 한곳에 집중해
즐거움은 즐거움으로 뜨거움은 뜨거움으로
선입관없이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분석·추리 없이 몸·마음 움직임 세밀히 관찰해야
깨어있는 마음 경험할때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

자연적 본성에 깨어 있을때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說)하신 대념처경(大念處經)에 의하면 마음과 몸의 현상에 대한 관찰법이 여러가지 있지만 크게 네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몸에 대한 관찰(身)
둘째, 느낌에 대한 관찰(受)
셋째, 마음에 대한 관찰(心)
넷째, 법에 대한 관찰(法) 입니다.

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좌선 명상시 일차적인 명상 대상인 아랫배의 움직임보다 다리의 통증이 더욱 분명하고 그 아픈 느낌이 우세하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통증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이 선택한 대상을 관찰해야지 우리 스스로 대상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심한 주의력으로 꾸준히 대상(통증)을 관찰하므로써 통증이 사라졌을때 마음은 더욱 명백하고 현저한 또다른 대상을 선택하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빠사나 명상이 고통의 소멸르 인도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릇된 견해의 원인인 무지를 제거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명상법에서는 개별적이거나 전체적인 정신적·육체적 과정과 현상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걸음을 걸을때 몸의 움직임보다 발의 움직임이 더 분명하다면 발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하고 음식을 먹을때도 모든 동작에 주의

수 있는데 이는 대상을 더욱 주의깊게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걷고자 발을 들때 "듦" 발을 옮길때 "옮김" 발을 내릴때 "내림" 이같은 방법으로 "듦, 옮김, 내림" "듦, 옮김, 내림" 등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상수행자가 명상대상에 마음을 겨냥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이름 붙이기법을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의 수행자는 이 명칭, 이름 붙이기법이 필요치

마음이 번뇌와 장애로 부터 맑게 정화되었을때 비로서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마타 명상의 결과는 자나(Jhana)와 같은 마음집중 상태의 성취를 통하여 상당한 수준의 행복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명상수행자가 정신적·육체적 제 현상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올바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빠사나(Vipasana)의 목적은 정신적·육체적 제현상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고통의 소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일정수준의 마음집중 상태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집중 상태는 정신적·육체적 진행과정을 부단하고도 지속적인 주의력을 통하여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빠사나 명상에 있어서는 개

"우리는 명상의 대상을 고집하면 안됩니다
마음이 스스로 대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몸과 마음의 진행과정을 관찰할 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대상을 명상의 목적물로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마음 그 자체가 스스로 대상을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신적·육체적 진행과정에서 그 어떤것을 명상의 대상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대상에 집착하게 된다는 의미(意味)가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명상과정에서 "알아 차리는 마음 – 명상대상에 깨어있는 마음" 또는 "관찰하는 마음"이 그자체의 선택에 따라 만나게 되는 극히 일상적인 성공에 따른 행복감이나 통증의 느낌 또는 좌선 명상시 우리신체에서 가장 현저한 움직임의 하나이기도한 아랫배의 움직임등과 같은 수많은 대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아랫배의 움직임에 마음을 겨냥하고 있을지라도 그 움직임에 늘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혹 등쪽의 가려움이 생겼을때 그 가려운 느낌이 아랫배의 움직임보다 더 분명하거나 현저하다면 마음은 그 가려움을 느낄 것이며 그 느낌 그대로의 것을 관찰하게 될것입니다. "가려움, 가려움, 가려움"과 같은 방법으로, 강한 주의력과 마음집중에 의해 가려운 느낌이 사라졌을때 마음은 관찰대상으로 다시 아랫배의 움직임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랫배의 움직임이 다른 대상보다 더욱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력 명상 즉 위빠사나(Vipasana 觀·慧·瞑想)의 원리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있는 현상 그대로의 실제모습을 관찰 또는 알아차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위빠사나 명상은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우리 인류의 목적인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데에 있어 아주 효과적인 길이 되기도 합니다.

력을 잃지 말아야 함을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먹는 동작에 따르는 세세한 동작들 모두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푼을 드는 동작, 내미는 동작, 음식을 집는 동작, 입으로 넣는 동작, 씹는 동작등이 모든 동작을 세밀히 관찰해야 하는데 이는 그릇된 견해의 원인인 무지의 제거를 위한 선행(先行) 노력인 모든 신체적 과정을 철저히 깨닫기 위한 작업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목욕을 할때나, 집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모든 동작의 움직임을 빠짐없이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일정한 수련기간 중 경행(Walking : 行禪) 명상을 한다고 가정하면 발을 들때의 동작, 내밀때의 동작, 내려 놓을때의 동작 등 각각의 움직임을 매우 면밀하게 또 정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때 명칭 또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분석하거나 추리(推理)함이 없이 면밀하게 발의 움직임을 관찰하거나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와같이 해서 점차적으로 이전보다 더욱 깊은 마음집중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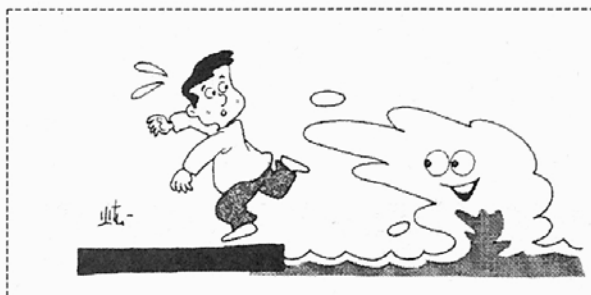
수련초기에는 마음이 쉼없이 방황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때 역시 그 방황을 놓침없이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족을 걱정한다면 그 생각역시 "생각, 생각, 생각"과 같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얼마후 그 생각이 사라졌을때 비로서 걸음걸이에 대한 이름 붙이기법을 사용해 "듦·옮김·내림"으로 관찰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별적이거나 전체적 진행과정과 그것의 실제모습을 그대로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과정은 어떤 것이든지 실제 모습 그대로 관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빠사나 명상자는 다양한 종류의 명상대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노여움이나 슬픔 또는 행복감 같은 감정도 하나의 명상대상이 될 수 있고 통증이나 가려움 또는 마비증세등의 감각 또한 위빠사나 명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적·육체적 진행과정도 위빠사나 명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35

양 형 진

진공묘유(眞空妙有) Ⅱ

풍랑 일어도 바다의 성품은 변하지 않아
'공은 색 포함한 근원 자리' 양자역학 밝혀

아무 것도 없다는 것, 즉 무(無)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무(無)를 존재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 내용으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쟁반 위에 사과가 몇 개 있다가 다 먹고 나면 아무 것도 남지 않게 되듯이, 존재가 정의되고 나서 가능해지는 무이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공 혹은 무와는 아주 다른 것이다. 공은 존재를 무화시킴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자리이기 때문이다.

현대물리학이 다루는 세계가 고전물리학이 다루는 세계를 포함하듯, 공의 세계가 색의 세계를 포함한다는 말을 하였으며, 30억년에 걸쳐 형성된 무명으로 싸인 세계인식이 불법을 만나 확장된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여기서 공의 세계가 색의 세계를 포함한다는 것은 무를 존재에 의하여 정의하고자 하는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공이 색을 포함하고도 남을 수 있는가?

이 문제와 연관하여 지난 번에는 디랙의 상대론적 양자 역학의 세계상 즉 현대물리학의 진공 개념을 물고기의 예를 들어 비유적으로 설명하였다. 이 비유는 물리학의 진공개념을 거의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현대물리학이 파악하고 있는 진공이란 허무단멸의 공이 아니고 묘유(妙有)하는 공이다. 진공묘유(眞空妙有)이다. 물고기의 비유는 현대물리학과 연관되는 것이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그와 유사한 예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우선 0이라는 수를 살펴보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수로 나타내면 0이 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어디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면 빌려온 돈과 투자한 돈이 서로 상쇄되어 자산은 변함없이 0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게 된다. 오히려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수도 있다. 사실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플러스-마이너스의 자유 뿐만 아니라 무한한 정신적 자유마저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무소유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닷물과 파도의 비유이다. 바닷물이 잔잔하여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고요하다면 이는 공의 상태에 해당된다. 그 바다에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게 된다면 풍랑이라는 색이 나타나게 된다. 고요한 바다에 바람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서 풍랑이라는 형상이 나타나게 되지만 단지 그것뿐 풍랑이 이는 바다도 역시 바다이다. 풍랑이라는 형상이 나타나더라도 바다라는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이를 금강경의 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과 연관시켜 생각해보자. 수미산과 같이 큰 파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한한 색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한, 바다라는 성품 자체와 그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수보리 존자는 '불설비신 시명대신(佛說非身 是明大身)'이라고 대답하였다. 공성(空性)의 바다는 색상의 파도를 언제나 그 안에 포함한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텅 빈 것이지만 연기에 의해 잠시 색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규봉스님은 금강경의 여리실견분(如理實見分)을 해설하면서 '공(空)은 모든 존재를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하는 것이고, 가(假)는 인연에 의해 잠시 거짓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中은 그 공 가운데 가유(假有)하는 것을 똑바로 알아 그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는 없는 것이나 현실로는 없지 아니하니, 없는 듯 있고 있는 듯 없어 진공묘유(眞空妙有)한 것이므로 중도라 한다' 고 하였다.

이처럼 공이란 허무단멸의 공이 아니라는 것이 상대론적 양자역학의 결론이기도 하고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욱(智旭)스님은 금강반야바라밀다파공론에서 "눈먼 중생들은 상을 타파한다는 말만 듣고 바로 상이 아니라는 데에 집착하여…단멸공(斷滅空)을 취하고 악지견(惡知見)을 이루어 속제의 차별상을 파괴하고 생멸에 따른 인과법을 없앤다…그리하여 일체 환망의 상을 영원히 여의긴 해도 실상의 자체 성품이 단멸공이 아님을 모른다"고 하여 공의 실제 의미가 진공묘유임을 밝히고 있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한남상사
Tel: 02)795-4083, Fax: 02)792-9659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총판 운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내외 벽화·병풍 및 액자화 작품
●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내·지방·외국 어디나 그림만 또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 (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주만)

정통 중국어 속성강좌
넴·난방, 최고급 시설과 어학실습실 완비
중국 사범대학 교수 초청강의 책임지도
기초반, 회화반, 유학반, 비지니스반
■ 스님 유학반 모집(이미 출국유학중)
■ 학위및 자격취득 책임보장
■ JW 202 유학허가및 입학통지서 보장
■ HSK 시험대비 중점 강의
中國語 : 漢文 : 書法
평일 6:30 ~ 22.00 (9월 학기 유학생 모집)
특별반 토➡14:00 ~ 18:00 일➡10:00 ~ 18:00
정기 학원생 취업보장(수시접수)
상담 : 代 (02) 246-8256, 246-8257
韓中語學院
원장 : 중국 함반 사범대학교 경제학 교수
중국 학위 심사위원(한국인 최초)
관허 1670호 기업진흥상담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 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유풍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404-9521 팩스:(02)266-2679

명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려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2분도현미 (먹기 어렵다)
3분도현미 (먹기 쉽다)
4분도현미 (먹기 더쉽다)
5분도현미 (먹기 더욱 쉽다)
6분도현미 (먹기 더더욱 쉽다)
백미10분도 (쌀눈이 전혀 없다)
"입맛대로 주문,배달"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231-5421~2
235-1846~7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 대적광전·법상·경상
• 의왕시(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태화사) : 법당 수미단 용각 복전함
• 울산(삼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법륜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충무(삼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 대웅전 수미단 용각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김해(천진사) :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시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친절한 1 : 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세인지도등)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투고투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안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스님 및 지도교사를 위한
찬불가 피아노 반주 3개월 완성
교과특성 개인지도 원칙, 레슨기간 자유선택, 찬불가를 통한 음악이론 및 실기지도, 시창청음 별도수업실시
●등록:수시접수(725-7527~9) ●장소:불교교육연구원(조계사 옆)
불교교육연구원

고은 불교 대하소설

싸우는 세상



그림 · 조향숙



39

과연 아수라는 피의 세상이다. 불이와 합두도 계속 싸우다 서로 박치기를 하게 되었다 "앗" 그때 불이가…

그런데 아귀의 세계로 가게된 것이 그 이유를 모르는 반전(反轉)으로 다시 아수라의 세계에 태어난 것은 사바세계의 시간으로는 1년도 넘어서였다. 이상한 노릇이었다.

불이와 합두는 이웃마을에서 각각 일정한 시차(時差)를 두고 태어났는데 피투성이였다. 둘은 다같이 자신들이 피투성이로 태어난 까닭은 어머니의 몸 속에 두 싸움꾼이 서로 칼부림으로 싸웠으므로 어머니의 몸은 피로 물들어 죽었고 그 몸 속에서 가까스로 산 목숨이 되어 태어난 아기도 피투성이었다.

특히 합두는 너무 피가 엉겨붙은 나머지 눈을 뜰 수 없는 소경의 갓난아기였던 것이다.

그 때문에 합두의 아버지인 수군(水軍)의 장교는 그가 근무하는 진(鎭)에서 돌아와 갓난아기 합두를 보고 그 아기를 마을 밖의 허드레 우물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가노(家奴)인 남정네가 그 아기를 안고 가서 우물에 넣기 전에 거의 죄정(廢井)에 가까운 그 낡은 우물 밑의 얕은 물을 다 퍼낸 뒤에 거기에 내려놓고 돌아왔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남정네의 아내가 밤중에 그 우물에 내려가 마구 울어대는 아기를 껴안고 올라 온 것이다. 다행인 것은 우물의 깊이가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게 밑에 흙이 쌓여있었고 우물 벽의 돌들이 손발이 의지할만한 돌출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갓난아기 합두는 하인배의 딸로 자라났고 그 집 주인의 딸로서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으로 되어야 하였다.

그 집 주인 수군 천부장(千夫長)으로서의 장교는 이웃나라인 약소국과의 방심한 전쟁으로 바다 위에서 함대 대부분이 과괴될 때 전사(戰死)하였다. 언제나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시대가 그 뒤로도 그칠줄 모르고 이어졌으므로 이번에는 그 승전국 가였던 작은 나라가 몽땅 폐허가 되는 대반격이 있었고 이 전쟁에 동원된 어린 합두의 양부인 노예조차 징발되어 다리 공사를 하던 중 적의 화살에 맞고 죽은 것이다.

그래서 합두는 아비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그 어린 시절도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늘 싸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사과연 이 10계란 불보살과 중생이 하나의 커다란 세계로 망라된 것이어서 부처와 중생의 차별 자체가 차별이 아닌 바를 일깨워주는 것인지 모른다.

까마득한 옛 인도에서는 오직 전투를 일삼는 귀신이 바로 아수라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악귀는 인드라(제석천) 신(神)의 위력에 몹시 불만을 품고 언제나 그 인드라신의 세력과 싸우는 일 없이는 살 수 없었다. 아니 몇번이나 죽었는데도 다시 일어서서 피투성이로 칼을 휘둘러대는 것이었다.

다만 그 아수라의 악귀에게는 아수라금(阿修羅琴)이 있었다. 그 거문고는 아수라가 분득 싸움이 아닌 것 즉 평화에 대한 생각을 낼 때마다 그 복덕에 의해서 누가 연주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울려주는 놀라운 거문고였다.

이 아수라금이 뒷날 천재시인 마명(馬鳴)의 손에 들어올 수 있었던 사실은 아수라 세상과 상관없이 기적이라할 수 있다. 마명은 그의 자작시 낭송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불소행찬(佛所行讚)' 이외에 그의 시와 함께 그의 음악연주도 실로 뛰어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가 지어준 가곡(歌曲) '뢰타화라(賴吒和羅)'를 연주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들은 화씨상(華氏城) 밖의 청중들은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가 직접 백선(白扇)의 옷을 입고 손수 종과 북을 치며 연주를 지휘한 결과 그 가곡의 주제인 고(苦) 공(空) 무상(無常) 무아(無我)의 슬픈 음악의 더없는 감동으로 그것을 듣고 있던 왕자들이 모조리 성을 나가 수행자가 되고 만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화씨성의 왕이 백성들까지 그렇게 되면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고 한탄해서 그 마명의 가곡을 금지시켰던 것이다. 바로 이 가곡에서 마명은 아수라금이 절로 가곡의 음조에 맞추어 그 오묘한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둘녘에 나간 소녀 합두가 사나운 미친개와 싸우고 있을 때 어디선가 아수라금의 소리가 들려와서 합두도 미친 개도 함께 싸움을 그치고 한동안 그 거문고 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아!"하고 소녀 합두는 피멍이 든 몸 안에 이상한 향기가 차는 것이어서 그 거문고 소리에의 감탄을 참을 수 없었다.

바로 그 거문고를 들고 오는 아수라 중생이 소년 불이였다. 합두는 그 소년이 어딘지 낯이 익었다. 아니 소년도 이 괴법박이기는 하나 아리따운 소녀가 어딘지 낯익었다.

"먼 나라에서 왔군요"라고 합두가 그의 싸움질하던 몸을 부끄럽게 여기며 말을 던졌다. 그녀와 싸우던 미친 개는 이미 죽어 있었다.

"아닙니다.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저 바위산 넘어 싸움터에서 살아 남았습니다. 그 싸움터 시체 더미에서 이 거문고가 스스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고 다시 감탄한 합두가 물었다.

"이름이 알고 싶어요."

"불이라 합니다."

"아아 그 이름조차 거문고 소리의 아름다움과 하나입니다."

"이 거문고의 이름은 바로 아수라금입니다."

"아수라금! 아수라의 싸움판에도 이런 아름다운 악기가 있다는 것이 아수라 중생에게는 커다란 구원(救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두가 말하였다.

"아무튼 이 세상은 싸우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판 아울러 싸워봅시다. 싸움이 인사이고 싸움이 친구이고 싸움이 사랑인 이곳에서는 싸움만이 본분(本分)이 아닙니까?"

"본분이든 허깨비든…그렇다면 싸워봅시다."

불이와 합두는 남녀의 부자연스러움 따위도 없이 마구 뒤엉켜 붙었다. 그들은 때굴때굴 굴러가며 마구 상대방을 할퀴거나 치거나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수라업으로 넘치고 있는 그 세상의 온갖 싸움들은 일찌기 그들의 사바세계에서의 그 지긋지긋한 싸움의 수라장(修羅場)보다 훨씬 치열하고 난폭한 것이었다.

그것은 아수라계 뿐 아니라 그밖의 중생계 전체에 대한 하나의 상징과도 같았다. 왜냐하면 아수라에서의 싸움은 하루내내 서로 치고 맞고 치고 맞는 일을 되풀이하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아니 그 싸움은 어느 한 동안이나마 쉬는 일도 전혀 허용될 수 없었다.

이런 싸움이 그 싸움의 업이 다하도록 이어져 가기를 한없는 세월로 보내는 동안 그 난폭한 싸움으로도 죽지 않고 그 싸움으로 인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계속 싸워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불이와 합두의 그것은 이곳에서는 어떤 특혜와도 같은 사람과 우정이 있는 싸움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 셈이었다.

그들은 서로 합쥔 얼굴과 어깨쭉지의 상처기의 핏자국 따위로 화를 돋구다가 문득 그들의 옆을 쳐다볼 수 있었다.

"아!"

"아!"

그들의 옆은 바로 늪이었다. 늪에는 두 마리의 악어가 있는데 바로 그 악어와 싸우고 있는 사나이가 있었다. 물론 사나이는 악어에게 이미 한쪽 손목을 잘려버렸고 악어가 물어뜯은 엉구리는 구멍이 뚫려서 피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피가 그 몇천년 동안 그대로인 늪속에 번져 늪물이 붉게 물들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토록 많은 출혈에도 불구하고 사나이는 결코 죽지 않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 두마리 악어와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 싸움은 거의 방어적이었지만 이따금 사나이 쪽에서 악어의 등때기를 치다가 그의 주먹이 등때기의 사나운 돌기부분에 찔려 다시 피가 나오고 악어의 등때기의 그 단단한 껍질도 금이 감으로써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었다.

누가 이 싸움을 아수라계의 현생(現生)만의 싸움이라 하겠는가.

"저쪽을 보아요"하고 합두가 불이의 등짝을 날카로운 열개의 손톱으로 그어대면서 외쳤다.

악 어판의 늪 건너에는 인간을 닮은 두 아수라가 창과 칼을 가지고 아무런 방패도 없이 찌르고 치고를 반복하는 동안 몸의 여러 부분이 절단되는 처절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과연 아수라는 피의 세상이다. 어디서나 붉은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붉은 피의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아서인지 숫제 검은 피를 토하는 축도 있었다.

어디를 보나 이렇게 처절한 싸움판 뿐이었다. 산도 다른 산에 대해서 서로 화산의 불길을 토함으로써 상대방의 산에 있는 숲을 태워버리고 있었다. 이쪽 산은 화산의 불이 없는 대신 저쪽 화산에 커다란 바위덩어리를 쏘아대는 무서운 지진(地震)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강물도 서로 뒤엉켜 서로의 물줄기를 막거나 물어버리거나 하는 싸움을 하는 중이었다.

이런 싸움뿐의 세상에 대해서 불이와 합두도 계속 싸우다가 마침내 그들의 신체들이 잘려나가버린 나머지 그들의 머리 부분만 남아 서로 박치기를 하게 되었다. 합두가 불이의 머리를 받았다.

"앗!"

그때 불이가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왔다.

법 회 안 내

제2기 불교 기초교리 무료강좌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제2기 불교 기초교리 무료강좌를 실시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기간 : 2개월 과정(8회 강좌)
9월 3일(음 8월 9일)부터 10월 29일(음 9월 6일)까지 매 일요일 오후 2시 – 4시(2시간 강좌)
* 위 기간 중 9월 10일(음 8월 16일)은 연휴로 휴강.
* 필기도구 지참. 교재 및 수강료는 무료

목요 정기 법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9월 14일(음 8월 20일)부터 매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유마경', '승만경', '금강경', '능엄경', '원각경', '법화경' 순으로 법회를 진행합니다.
* 월 회비는 20,000원으로 법문 녹음 테이프 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요 정기 법회

현재 금요 법회(매 금요일 오후 2시–4시)의 강의는 원각경으로 8월말로 끝을 맺으며 9월 금요법회부터는 '법화경' 강의를 실시합니다.

이상 자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서울 종로구 수송등 46-19 원당빌딩 2층
02-720-3245~7

대한불교조계종 진 여 회

판례를 보내 주십시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국가 법령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각종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불교 관계 판례 · 문답집"과
"불교판례모음집"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는
스님이나 사찰, 단체는
그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사소해 보이는 자료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내실 자료 : 판결문 전체(사건 번호, 판결법원, 사건명, 소송 당사자, 판결 내용, 재판 관여 법관 등)

보내실 곳(문의하실 곳) :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전화 : 02-733-4749, 732-9342
팩스 : 733-8285

출판 · 편집 안내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인생은 짧고 기록은 영원합니다. 도서출판 사람들은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는 물론 보통사람들의 자서전 · 회고록 · 개인기록 등을 전문적으로 기획 · 집필 · 편집 · 광고를 해 드립니다.

◎자서전 ◎회고록 ◎출판대행
◎수필집 ◎시 집 ◎편집대행

※ 인생 경험과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스님과 불자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출판 기획만 원하시는 분, 출판 아이디어나 출판 예정인 원고가 준비된 분의 연락을 환영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 혹은 방문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에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전문적으로 기획 · 집필 · 편집 · 제작도 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사람들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현대 오피스텔 3층
전화 : (02)725-6752~4
팩스 : (02)725-6920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 대표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광고국	02-737-0692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9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포항출장소	· 전화	0631-281-2534
울산출장소	· 전화	0416-856-3280

광복 50

해방둥이 사부대중에게 듣는다

광복 50주년 특집

"일본 흉내내기 문화 반성 통해 한민족 전통 살리는 새출발을"

법산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광복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이다. 우리 민족이 36년간의 일제 압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찾았다고 하나 기형으로 태어난 반신불수의 민족애환은 여전하다.

우리 민족이 자주적 통일을 이루지 못 하는 한 불안과 부자유는 항상 남아있을 것이다.

광복50주년, 일제 잔재의 건물철거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제 부품이 아니면 자동차나 전자제품 하나 만들지 못하고, 일본식 의상에 헤어스타일까지 흉내내는 경제적·문화적·정신적으로 물들어가는 현상을 반성하지 않고 방종한다면 새로운 종속관계로 동화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올해는 단순히 들뜬 축제에 정신 팔 것이 아니라 민족 긍지를 되살리는 전통문화를 개발하여 인류 문화의 창조에 새로운 전기가되는 광복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조국광복과 동시에 몰려온 서양의 물질 만능과 정신적 퇴폐에 잠식되고 있는 한민족 전통을 되살리는 데는 한국불교가 새롭게 태어나 찬란한 문화와 과학의 명예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불교 대사회적 역할 강화로 시대정신 이끄는 목탁울려야"

동희 스님 〈범패·작법 이수자〉



해방 이후 50년.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겪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아픔을 견뎌야 했다. 불교계 또한 수많은 고통속에서 민족의 시대정신을 이끄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

나 자신에게 '해방둥이'란 의미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대사와 함께 나이를 먹어 가는 한 수행자로서 금년을 맞는 느낌은 남다르다. 불교의 전통예술을 지키고자 애쓰는 입장에서 지난 50년간을 돌이켜 보면 한마디로 아쉬움의 세월이 아니었나 싶다.

많은 문화 예술의 마당이 펼쳐져 왔고 불교음악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불자들의 관심과 각 종단의 미약한 관심으로 세월에 비해 발전의 폭은 넓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지나 온 50년 보다 앞으로의 50년에 더 큰 기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불교 포교의 현장에 삶의 애환과 의욕을 어루만지는 문화적 요소가 충분히 접입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목탁소리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신라범종·고려불화등 민족유산 남의 땅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김문길 교수 〈부산외대 일본어과〉



1995년을 광복 반세기라는 단순한 물리적 시간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되찾고 한일 과거역사를 청산하는 작업에 진지해져야 할 순간이라고 본다.

우리 한민족의 혼이 담긴 문화재는 찾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고단했던 우리의 역사가 일러주듯, 많은 시련을 거치는 동안 귀중한 문화유산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살, 약탈 당한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민족의 혼과 신앙이 담긴 신라범종, 고려불화 등 크고 가치있는 문화재들은 대부분 일본에 산재해 있다. 이런 우리 문화재들 중에는 아직 조사, 발견되지 않은 것도 엄청나 하루빨리 관계 전문가들이 연구조사하여 해외반출 우리문화 자료집을 만드는 것이 광복 50주년을 맞는 우리국민들의 엄숙한 사명이다.

아울러 일제하 징용으로 끌려가 아직 유골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과 정신대 할머니들의 회복키 어려운 삶과 청춘에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일본의 성의있는 배상을 촉구한다.

"생명경시·이기주의서 벗어나 한국인상 재정립에 나설 때"

황옥자 교수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해방된지 50년이 되는 8·15광복절을 맞아 우리의 반세기 삶을 뒤돌아 볼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에서의 눈부신 성장 발전은 가히 놀라울 정도이다. 특히 "잘 살아 보자"는 온 국민의 일념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돌진해 왔으며 그 결과 GNP 1만불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그 성장의 뒤안길에는 이기주의·부정부패의 만연, 윤리(倫理)와 도덕성(道德性)의 결여, 가치관(價値觀)의 붕괴, 생명경시 풍조의 천민적행동이 독버섯처럼 퍼져 안정된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행동을 야기하고 있다.

이제 해방 반세기를 맞아 책임감 없는 이들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국, 한국인상을 정립하여 해방의 참뜻을 길러 나가야 할 때가 왔다.

여기에 불교적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요구된다. 잃어버린 순수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더불어 돕고 살아가는 공동체적 의식은 바로 불교를 통해 뿌리 내려야 할 덕목인 것이다.

광복 참 뜻 되새기는 문화행사 '다채'

애국지사 유물전·통일염원 조각전·민속풍물전등 열려

8·15 광복 50주년을 맞아 조국광복의 참뜻을 되새기는 행사가 다양하다.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육필을 모은 '애국지사 유묵전'이 지난 10일부터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유묵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불교풍토를 비판하는 만해 스님의 한시와 '임꺽정'의 작가 홍명희씨가 만해스님에게 보낸 친필 편지등 1백17점이 전시된다.

또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의지를 조형작품으로 보여주는 '광복 50주년 기념 통일염원의 조각전'이 지난3일 문을 열어 오는 20일까지 한가람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는 조국통일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분단에 대한 김영원, 전수천, 고정수씨등의 예술가적 통찰을 담아낸 작품 50점이 선보이고 있다.

8월 15일 광복절, 국립중앙박물관(구 조선총독부) 건물 꼭대기의 돔 철거에 앞서 광화문 광장에서는 목정배교수(동국대)의 시에 국립국악관현악단 박범훈 단장이 곡을 쓴 '다시 찾은 빛, 천둥소리' 무대가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광복전후 1백년간 민속풍물 자료 및 유물을 특별전시하는 '근대백년 민속풍물전'도 9월15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다.

또한 서울 6백년 기념 전시관에서는 오는 22일까지 독립운동과 광복 반세기 역사를 담은 4백여점의 사진을 선보이는 '광복 50주년 기념 국내외 사진전'이 소개된다. 지난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근대 백년 국가 기록물 전시회'와 오는 15일 발간되는 '독립운동 총서' 또한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다.

지난 9일에는 불교·기독교·천주교 범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광복 50주년 그후를 얘기하고, 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DMZ(비무장지대) 기획 주제전' 개막식을 가졌다.



◇지난 9일 인사동에서 열린 '비무장지대 예술문화운동 작업 전' 개막식에서 박찬갑씨가 「DMZ 한의 소리」를 공연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광복 50주년 특집 관계로 '이근후의 건강칼럼'쉽니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늙음의 장 *
썩은 육신은
마디마디
흩어지고

이 향 원



성하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붓다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다녔고 당신과 함께 앉았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안에 있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아파 디포 브하비(appa deepo bhava) ·····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본문 중에서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그대의 모든 돈, 모든 보석, 그대의 모든 은행 잔고를, "나는 조약돌로 본다."고 붓다는 말한다.
그대는 삶의 바닷가에서 갖기지 조약돌을 모으며 놀고 있는 어린아이다.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해변의 조약돌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이에 삶은 그대 손에서 벗져 나와 미끄러져 간다. 그대는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기회를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망쳐 버려서는 안 된다.
—본문 중에서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광소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영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 이경옥 옮김
신국판 전2권 / 각권 7,500원

특집 광복 50

불교 50년을 움직인 100人

"격동의 세월에 지혜·자비 종자 뿌렸네"

민족정신과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는 '해방의 감격'에서 시작된 현대사 50년의 시간을 따라 숨가쁘게 달려 왔다. 정치·경제·사회·문화가 거센 파도처럼 일렁거렸다면 불교 역시 그 질곡의 파도로 현대사와 동행해 왔다.

광복 50년을 맞아 결코 순단치 않았던 반세기 불교사를 되돌아보며 고매한 수행력으로 대중을 교화하다 열반에 드신 큰스님, 종무행정에서 산맥을 이룬 스님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몸바쳐 '부처님 일'을 한 주역 100인을 선정해 보았다. '불교 50대 사건'과 더불어 이들의 발자취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지표로 삼기 위해서다. 지면관계상 더 많은 보살들을 소개 못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편집자 주〉

고승

◇한암스님:경허의 대표적 전법 제자. 1941~45년 조계종 초대종정을 지냈다. 6·25 전쟁때 상원사 소각을 막은 것으로 유명.

◇효봉스님:판사생활을 하다 38세에 석두스님을 은사로 득도, 54년 정화불사를 이끌었다. 62~66년 통합종단의 초대 종정에 추대. 제자로 구산, 법정, 고은, 박완일 등.

◇동산스님:천불선원 3년 결사를 마치고 범어사 금강계단의 전계화상이 됐다. 1958년 조계종 종정 취임. 문하에 성철, 자운, 지효, 능가, 광덕스님 등.

◇전강스님:전국 유명선원 조실역임. "사리를 수습하지 말고 인천 앞바다에 뿌리라"고 당부, 사후에 법이 더 빛났다. 제자에 송담, 능파, 정락, 정무, 정대 등.

◇경봉스님:'통도사 극락선원' 등에서 50여년간 후학지도. 한시·시조·묵필에도 뛰어나 작품 통해 대중을 교화.

◇금오스님:동산·청담스님과 더불어 정화에 앞장. 제자에 월산, 월남, 법향, 탄성, 혜정, 월주, 월서, 월탄스님 등.

◇향곡스님:동래 묘관음선원에서 전국 납자들 지도. 주요선원 조실로 선풍 진작. 제자로 진제스님등.

◇춘성스님:전국 유명선원 조실을 두루 지낸 '욕쟁이 선사'. 시원한 법문이 유명.

◇혜암스님:덕숭총림 초대방장. 저서로 〈선관법요〉〈선문촬요〉 등. 100세 고승으로 알려졌었다.

◇고암스님:선·교·율에 모두 밝았고 무소유의 삶을 지켰다. 해인사 백련사 직지사 범어사 선원 조실 역임. 1967·1972·1973년 3회에 걸쳐 조계종 종정을 맡았다.

◇구산스님:69년 조계총림 개원, 초대방장. 송광사 불일국제선원, LA고려사, 카멜 대각사 제네바 불승사 등을 개설해 국제포교에 크게 기여했다.

◇자운스님:율학에 정통. 49년부터 비구계본 비구니계본 범망경 사미니율의 등을 한문본과 번역본 출판. 45 하안거 성만.

◇성철스님:67년 해인총림 방장, 81~93년 조계종 종정. 철저한 수행과 계율로 현대 한국불교 최고의 수행자로 꼽힘과 아울러 국민의 스승으로 대중교화에 크게 이바지.

종무행정

◇만암스님:호남 고불총림 결성, 조계종 정화운동의 효시를 이뤘다. 1952~54년 조계종 정화종단 초대 종정.

◇석우스님:55년 조계종 정화 이후의 실질적인 초대종정이 되었으며 정화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청담스님:제1차 수좌대회 열어 전면적 대처승 정화 주장. 이후 도총섭이 되어 정화에 적극 참여.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 동국학원 이사장, 1966년 조계종 통합종단 2대종정 등 역임. 스님은 포교에도 진력, 한해 2백88회의 설법을 하기도 했다.

◇대륜스님:69년 한국불교 태고종을 창종, 초대종정을 지냈다. 제자로 덕암 용봉 운제스님 등.

◇상월스님:1946년 단양 구인사 창건. 1966년 천태종 창종, 69년 구인사에 10여동 건물을 세워 크게 중창했다.

◇손규상:호는 회당. 1947년 진각종의 전신인 참회원 설립해 신불교운동 전개. 1953년 교명을 진각종으로 개칭하고 종제를 세워 교단의 대표직을 맡았다.

◇태허스님:불입종의 개조. 한중불교 친선회·한일불교친선회 고문을 맡는등 불교의 국제교류에 기여.

◇경산스님:63·73·79년 조계종 총무원장. 종전다툼과 파당을 제거하고 종단의 화합단결을 위해 헌신.

◇기종스님:75년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맡아 재정마련에 힘썼다. 종회의장을 역임하는등 종단살림에 힘썼으며 역경원장도 지냈다.

◇덕암스님:86~93년 태고종 종정 역임. 포교사협회 회장과 총재를 맡으면서 포교에 헌신해 왔다.

◇녹원스님:76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84~86년 조계종 총무원장. 동국학원 이사장.

◇월주스님:78~79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80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맡았다 10·27 사태로 물러나고 지난해 제28대 총무원장 취임. 경실련등 공동대표를 맡고있다.

◇운덕스님:천태종 7·8·9·10대 총무원장. 중국 국청사에 천태조사당을 건립하는등 한중 불교교류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서의현:86~94년 조계종 총무원장. 유일하게 임기를 채우고 3임을 강행하다 개혁세력에 의해 퇴진.

포교·신행

◇대은스님:알기쉬운 경전 번역, 해설서등 평생을 대중포교사로 활동했다. 45년 해방과 함께 만주에서 귀국, 강석을 열어 교학을 폈다. 팔만대장경번역위원회, 동국역경위원등을 역임하며 대장경 한글화에도 앞장.

◇홍도스님:탕울스님으로 불릴정도로 대중속에 직접 뛰어들어 托鉢전파. 새벽 3시면 도심 골목을 돌며 도량석을 했으며 항상 불서를 나눠주었다.

◇장경호:불교대중화운동의 선구자. 75년 사재 30억6천만원을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내놓으며 불교중흥을 위해 써달라고 하여 재단법인 대한불교 진흥원이 설립됐다. 불서보급사 대원정사 대원불교회관등을 설립, 장학사업 군부대 및 사찰법당건립등 각종 불사를 지원했다. 신행단체 대원회 창립.

◇황산덕: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에 앞장섰으며 52년~66년 룸비니불교학생회를 이끌었다. 80년 불교진흥원 이사장에 취임, 별세할 때까지 불교발전에 헌신했다.

◇승산스님:명실상부한 해외포교의 선두주자. 67년 7월 한국불교 해외진출을 위해 일본에 홍법원 개설을 시작으로 홍콩 미국 플라드등 전세계 12개국에 50여개의 선원을 열었다. 소련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선원을 개설했으며 세계평화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도안 대원 삼우스님 등이 해외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광덕스님:불광회 법주 및 월간〈불광〉발행인으로 법회, 문서포교에 새장을 열었다. 74년 대각회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불광법회를 창립했다. 동국대 이사를 맡고 있으며〈반야심경 강의〉등 많은 포교서를 발행.

◇광우스님:서울 목동청소년회관 관장을 역임하는등 청소년포교에 앞장. 69년 '신행불교'를 창간했으며 비구니 교육에 매진.

◇무진장스님:일찍이 대중포교에 헌신, 직접 포교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동국대 초대교법사를 역임. 조계종 2.4대 포교원장을 역임하며 종단차원의 포교체계를 수립했다. 74년에는 전국 53개지역을 순회하며 불교사상강연회를 가졌다.

◇대행스님:국내외 30여곳에 한마음선원을 개설해 생활법문으로 마음닦는 법을 펴고 있다. 미국 이글클럽(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자문회)명예회원.

◇삼중스님:71년 대구교도소를 중심으로 재소자교화에 투신, 재소자의 대부로 불린다. 불교도 갱생보호우원회 위원장, 재소자교화후원회장 등을 맡고있으며 이총 호국영령위령탑 건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교정대상 특별상 수상.

◇서돈각:서울대학교 고수시절 대불련 창립 산파역을 맡았다. 동국대총장, 탄허불교문화재단 초대이사장, 학술원장 역임. 92년 불교진흥원 이사장, 93년 무애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불교와 문화발전에 주력.

◇이윤근:80년이후 줄곧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맡아 부산불교를·이끌고 있다. 86년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

◇박완일:80년대 조계종 전국신도회 회장을 역임하며 불교대중화에 앞장. 동국대 총학생회장, 한 중 홍콩불교협회장 역임. 70년 월간 〈법륜〉을 창간했다. 72년 서울신도회에 불교교양대학 개설.

◇선진규:진주 봉화산에 청소년수련원을 설립, 수련을 통한 포교에 주력. 동국대 총학생회장, 대한불교청년회 10·11대 회장 역임. 69년부터 조계종 중앙상임포교사.

◇황경석:70년대 10여년간 삼보법회 회장 역임하며 대중법회 선도. 전국신도회 부회장을 맡아 신도회 발전에 앞장섰다. 조계종 종정, 조계종 총무원장상 수상.

교육

◇관응스님:일본 용곡대 수학. 김용사·직지사등서 강사 역임. 무문관 6년 수행. 81년 전국승가학원 교수회 초대회장.

◇지관스님:80년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84년 대학원장, 86년~90년 동국대 총장 재임시 경주의대 부지매입등 학교발전의 획을 그었다. 불교계 본격 학술단체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설립.

◇운제스님:44년 봉은사 강원 강사, 65년 동국대 역경원 역경위원, 건국대 교수. 88년 태고종 동방불교대 학장, 선암 승가대학장 역임. 88년 태고종 총무원장 역임.

◇묘엄스님:동학사 강사, 57년 동학사 전강, 66년~69년 운문사 강원 강주, 79년 봉녕승가학원 강사. 봉녕승가대학 학장.

◇명성스님:58년~61년 선암사 강원 강사, 61년 70년 청룡사 강원 강사. 70년부터 비구니사관학교로 불리는 운문사 승가대학장.

◇김법린:52년 문교부장관, 63년 동국대 총장, 95년 보훈처로부터 독립장 추서.

◇백성욱:50년 내무부장관, 53년 동국대 총장. 금강경 강의 설법으로 대중교화·포교에 기여.

◇이선근:동국대 총장, 정신문화연구원 초대원장, 국사편찬위원장 역임.

◇정재각:78년~82년 동국대 총장, 79년 동국대 대학원장 역임.

역경

◇운허스님:64년 동국역경원이 개원하자 초대원장에 취임, 80년 입적하기까지 주요 역서 30여종을 남김. 역경원장 이전인 50년대부터 출판사 '법보원'을 설립해 법화경 열반경 유마경 등을 번역해 역경의 기틀을 마련했다. 최초의 '불교사전' 펴냄.

◇석주스님:운허스님의 역경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64년 역경원이 개원하자 역경부장으로 활동함. 85년에는 재단법인 역경사업진흥회를 설립했으며, 95년 역경원후원회장을 맡아 노령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지원하고 있다.

◇탄허스님:75년 초발심자경문부터 화엄경에 이르는 17종의 번역서를 펴냈으며, 이 업적으로 인촌문화상과 은관문화훈장 받음.


◇운허


◇관응


◇법정


◇만봉


◇김동화


◇서정주

◇월운스님:93년 10월 역경원장에 취임, 97년까지 250권 분량(95.7 현재 174권 번역 출간)의 한글대장경 완간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운허스님의 상좌로 70년대부터 선문염송 원각경 금강경 등을 번역했다.

◇김달진 이종익 송성수:역경원 초기부터 역경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경전을 번역하는 한편 역경사 양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김달진씨의 법구경(현암사 펴냄)은 최초의 법구경 번역서로 현재까지 대표적인 번역으로 꼽힌다.

◇박경훈:69년부터 역경원 출판부장으로 있으면서 외부출판사와의 문제를 조정하는 한편 약사경 관음예경 청허당집을 번역 출간. 94년2월 퇴직하기까지 30년 가까이 역경사업에 헌신. 불교언론에도 기여.

학술

◇권상로:46년 동국대 교수 취임. '고려사 불교초론' '이조실록 불교초론'등 수많은 저 다수.

◇김지견:일본 동경대서 화엄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국내보다 일본에서 더 잘알려진 화엄학자. 76~86년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 89년〈원효상사의 철학체계〉등 경전연구 논문과 불교사 논저 다수 저술.

◇김영태:69년에 우정상 교수와 최초로 한국불교사를 정리한〈한국 불교사〉저술. 한국 불교사 관련 논문 1백여편 발표.

출판

◇법정스님:'영혼의 모음'(72년)을 비롯 '서있는 사람들' '산방한담' '말과 침묵' 등을 펴냄. 특히 '서있는 사람들'은 78년 발행이후 1백만부 이상 팔려나가는 밀리언셀러를 기록.

◇일엽스님과 용산스님:'청춘을 불사르고'(62년, 문선각) '여보게 저승갈때 뭘가지고 가지'가 초베스트셀러로 포교에 기여.


◇한암


◇효봉


◇청담


◇성철


◇광덕


◇장경호

한암·효봉·경봉·성철등 높은 수행력으로 국민정신 이끌어

해외포교·역경 활발 '중흥의 싹' 틔워…후학 육성에도 주력

만암·청담스님등 정화 불사 주력

숭산스님 50여개 해외 한국선원 개설

◇이규택:75년 출판등록 이후 '화엄철학' '대승기신론'등 묵직한 불교학술서를 출판. 경서원 대표.

◇윤재승:80년 민족사를 창설, 교계에서 가장 많은 2백여종의 불서 발행. 불교학총서 33권까지 발행, 불교학 전문출판사로 자리를 굳혔다.

◇이봉수:본격적인 불서 전문서점 보련각 운영. 각종 경전 영인등 불서보급에 기여.

◇원택스님:장경각설립(87년), 성철스님 법어집 11권을 비롯 선림고경총서 37권 발행. 불교출판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

문학

◇서정주:'국화 옆에서' '화사집'등으로 해방전부터 한국대표시인으로 꼽혔다. 해방후에도 '떠돌이의 시' '학이 울고간 날의시' 등 민족정서와 불교정신이 깃든 시집과 '세계방랑기'등 여행기 수십편 발표. 86년 대한민국 예술원상 수상.

◇고은:60년 첫 시집 '피안감성'후 '새벽길' '전원시편' '만인보' '백두산'등 옹골찬 시집 수십편을 내며 '화엄경'으로 경전소설의 첫 길을 내기도 했다.

◇이원섭:'향미사'등 대표시집을 내며 역서 '불교대전'도 펴내는 등 한시와 선시 번역에 매진.

◇석지현:69년 중앙일보에 '점화'당선. 승려문인의 선발주자로 '밤빗소리'등 ⬈

모든 사찰에서 마이크 性能을 시험해 볼 기회를 드립니다.

3년 保證

유코전자의 고성능 마이크는 각종 법회 봉행, 설법전용 마이크로, 단 한 개라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는 예술작품입니다!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작은 음성도 잘 들어가는 흡음력으로 큰스님, 원로스님들께는 꼭 필요한 마이크라고 감히 권해드립니다. 「음향연구가 金文華」가 설계한 작품이오니 사용해 보십시오.

전국 사찰의 엠프, 스피커, 마이크 등에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것, 혹은 기술적으로 도움을 원하시면 문의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분리형 스탠드 마이크
• 공급가 : 180,000원

DX-707
분리형 스탠드 마이크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 설법시 마이크에서 소리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값비싼 외제 마이크보다 멀리서 잘 들어갑니다.



설법 전용 최고급 YD-675
다이나믹 마이크
• 공급가 : 90,000원

YD-675 마이크는
'삐-이'하는 하울링 영향 없이 부드럽고, 맑은 소리로 편안히 사용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마이크입니다.



V-606LC
설법용 고급 마이크
• 공급가 : 65,000원

V-606LC 마이크는
규모가 작고 좁은 법당에서 '삐-이'하는 하울링 영향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마이크입니다.

스튜어트 Stuart® 공특상표 상표등록 제135828호 의장등록번 제94-18883호

유선 핀마이크



T-7
경전강조, 설법 각종법회용
• 공급가 : 45,000원

T-7 핀 마이크는
감도가 매우 높으므로 앰프의 고음과 저음 조절 손잡이를 좌측으로 낮춰준 뒤 볼륨을 서서히 올려 스피커로부터 다소 멀리서 사용하십시오.

유코전자에서 생산되는 각종 마이크는 '음향연구가 金文華'가 직접 설계한 작품으로, 특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100% 금속막대로 하나씩 가공해 만들어지는 '음성소자'는, 부드러우면서도 맑고 힘찬 소리를 연출하는 최고급 수준의 마이크로서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독일 및 유럽 8개국 수출업체임)

마이크만을 생산, 수출하는 기업-
유 코 전 자
본사 : 158-091) 서울시 양천구 신월1동 226-7
TEL:02)605-3235, 697-9976, 693-7537 / FAX:02)695-9676

특집

btn 선정 불교 50대 사건 광복 50

시집 다수 간행.

◇조오현:60년대 시집 '심우도' 등 냈으며 71년 파계사에서 성우·정휴·향봉스님과 '승려시집' 발간. 이 영향으로 승려문인들의 모임활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박희진:55년등단. 선(禪) 적인 풍의 사행시 창작으로 시단의 주목을 받고있다.

◇신현득:창작 동시집 '고구려 아이' 동화집 '부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외 다수 불교아동문학의 길 개척.

◇김성동:화제작 '만다라'에서 수행의 참면모를 제시 주목을 받았고, 불교소설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남지심: '연꽃을 피운돌' '우담바라(전4권)' '새벽하늘에 향 하나를 사르고' 등을 발표해 불교소설의 영역확대.

음악

◇송암스님:범패 인간문화재(50호). 불교전통음악 전수를 위해 수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장벽응 이일응 정지광스님 등과 함께 활동.

◇운문스님:64년 12월 찬불가, 동요집 간행. 조계사, 석불사, 연화어린이 합창단 결성. 많은 찬불동요가사를 써서 작곡을 의뢰했다.

◇최영철:71년 찬불가 공모전에서 최초의 의식 찬불가 '삼귀의' '사홍서원' 당선. 2백여편 이상 창작(최영철 작곡집)도 냈다. 대전지역에서 많은 사찰합창단 지도.

◇서창업:74년 불교음악 연구원 설립. 76년 〈찬불가 100곡집〉 발간. 89년 타계하기 까지 일생동안 찬불가 작곡과 합창단 육성 등 찬불가 보급에 헌신.

◇김용호:83년 '새 찬불가' 발간. 의식곡과 찬불가곡등을 내놓으며 사찰 합창단 양성에 힘썼다.

◇박범훈:73년 '사(死)의 승무' 첫선 보인 이후 불교 무용곡 '하얀초상'(88년)발표. 불교교성곡 '붓다' '보현행원송' 등 대곡발표

◇정부기:부처님의 생애를 묘사한 교향곡 '붓다의 노래'를 비롯 '예불' 등 찬불가의 새장을 여는 많은 곡을 발표했다. 93년에 안병길씨와 공동작업으로 1천여곡의 불교음악을 정리한 '찬불가전집' 전9권 발간.

◇김동환:반야심경 편곡등. 90년부터 불교방송 찬불가 100곡 제작 5년사업에 동참. 이 작업에는 불심있는 일반 작곡가 대거 참여.

미술

◇만봉스님:73년 주요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에 지정. 89년 팔순기념전시회등 전시회 개최, 전국 유수 사찰 단청작업. 후학양성에도 주력. 원덕문스님과 당대 최고의 단청장.

◇석정스님:68년 동아국제미술전에 입상하면서 선서화의 대중화 길을 열었다. 92년 단청장 기능보유(인간문화재).

◇권정학, 권정환:형제 모두가 불교 전통예술에 입문, 이들은 70년 첫 불교미술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중광스님:국내외에 수차례 개인 초대전 개최, 선화에 대한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서세옥:61~82년 국전 심사위원 서울대 미대학장 역임, 개인전, 단체전 외에도 잡지 표지화등 통해 독특한 화풍선양, 선화풍의 작품으로 화단에 영향을 미쳤다.

◇전영화:국전 초대작가. 불교정서의 한국화로 각광. 손연칠, 윤광조, 이왈종, 유종민, 박찬갑, 김영중, 강대철, 강행복, 강행원, 정경연 등 80여 회원과 93년에 불교미술협회 창립.

영화·연극

◇신상옥:57년 '무영탑'을 제작 불교영화의 막을 올렸다. 이후 58년 '지옥화' 67년 '꿈' 제작.

◇한갑진:79년 영화 '팔만대장경'제작 이후 불교영상제작에 심취 비디오 '한국의 불교' '스리랑카'와 '석굴의 직관' 불교입문서등 많은 교리해설서, 번역서도 펴냈다.

◇일봉스님:91년 불교포교전문극단 '종' 창립. '서천꽃밭' '사모곡' 등 전국 순회무대에서 공연.

◇임권택:81년에 영화 '만다라'로 불교영화의 바탕을 일으켰다. 84년에는 '비구니'제작을 중도하차 했으며 88년에는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제작 불교영화의 전성기 구가.

◇유승엽:81년 창작뮤지컬 '님의 침묵' 총연출.

◇김상열:91년 뮤지컬 '무애가' 등 발표. 구룡사에 극단 '신시'를 개설, 대표로 사찰극단의 참신성 심기에 성공.

◇이민희:90년 '그것은 목탁구멍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92년 '피고지고 피고지고' 등 격조높은 불교희곡 창작, 강영걸씨 연출로 공연, 불교연극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정지용, 김양득, 장선우, 박철수:신예 감독들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우담바라' '화엄경' '오세암'등을 제작해 불교영화의 물길을 꾸준히 이끌었다.



찬불가 제작 보급등 몸바쳐 원력 불사
문학·선서화 대중문화 현장으로 확산

언론

◇이한상:64년 '불교신문'의 전신인 '대한불교' 운영권을 인수받아 불교언론의 새 장을 열었다. 70년 삼보법회를 발족, 삼보장학회도 설립 후학육성에 힘을 쏟았고 말년에 미국에 삼보사를 설립 해외포교에 주력.

◇장상문:부친 장경호씨의 원력을 이어 90년 세계유일의 불교방송을 개국, 한국포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대중불교 전신인 대원회보(85)와 월간 글렁쇠어린이를 창간(90)했으며, 89년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역임.

◇태응스님:다매체시대 불교TV개국으로 불교영상포교의 장을 열었으며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통도사 주지 역임.

◇정휴스님:78년 불교신문 편집국장, 주필을 거쳐 현재 동신문 사장으로 재직중인 불교언론의 산증인. 주간불교와 법보신문을 창간했으며 불교방송 개국에도 전력, 상무를 역임했다. 소설·산문집·고승평전 등을 펴내기도 했다.



◇1954년 5월 이승만대통령이 불교정화 유시를 내리자 효봉·송산·청담스님등 당시 비구대표들은 54년 8월25일 선학원에서 제1차 비구승 대표자대회를 소집 정화불사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한국불교 1600년 사상 최초로 1961년 운허스님이 불교사전을 펴냈다. 이어 72년 동국역경원에서 불교성전을 간행 불교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정화·분규·법난속 '연꽃 피우기'

○조선불교 중앙총무원 조직(1945.8.20) 김법린 허엽 스님등이 태고사(현 조계사) 종단 운영권을 인수 받음. 한국불교의 자주화와 왜색불교 척결의 태동을 의미하는 사건.

○사찰령, 31본말사법 폐지 결의(1945.9.22) 일제시대 때의 불교 약법이었던 사찰령의 폐지는 곧 왜색 불교의 폐지와도 같았다.

○불교혁신을 위한 선학원 불교도 대회(1947.5.13) 광복 이후 식민 잔재의 청산과 민족 불교 전통수립의 첫번째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진보적 스님들과 지식인층이 연합한 교단 혁신운동.

○임시 총무원 부산으로 이전(1950.6.26) 한국전쟁으로 인한 총무원 이전.

○동국대학교 승격인가(1963.2.6) 1906년 진보적 불교 교육의 일환으로 설립된 명진학교에서 최초의 종합대학으로 승격.

○이승만대통령 불교 정화 유시(1954.5.21) 8차례에 걸친 정화 유시는 불교 내부의 자율적 정화에 정권이 개입된 사례.

○조계종의 봄' 이라고까지 불린 지난해 조계종 개혁은 관제·어용불교를 떨치고 불교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사부대중의 전폭적인 동참과 지지를 통해 개혁종단으로 이어졌다. 사진은 지난해 4월13일 거행된 개혁회의 현판식.

신도조직 정비…불교방송·TV 포교혁명
'6비구 할복' '10·27' 기억 생생…승려대회도 잦아

○태고사 강제 접수(1954.11.10) 두 차례에 걸친 전국 비구승 대회 이후 태고사(현 조계사) 점거.

○전국 신도회 조직(1956.6.16) 재가 불자들의 조직적인 신앙 생활과 포교의 일환으로 발족.

○불교신문 창간(1960.1.1) 불교계 최초의 신문인 불교신문(당시명:대한불교) 창간.

○정화 6비구 할복 기도(1960.11.25) 4·19 혁명 이후 불교계의 변화와 더불어 대법원의 비구승 승소 파기에 항의.

○불교사전 출간(1961.5.22) 한국불교 1600년 사상 최초로 한글판 불교사전이 출간됨. 역경사업에 평생을 바친 운허스님의 개인적 노력과 종단의 지원으로 간행된 이후 역경, 포교 및 교육등에 일대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불교문화연구원 설립(1962.3.5) 불교문화의 학문적 체계 확립을 위하여 동국대학교에 설립.

○불교재산 관리법 제정(1962.5.31) 불교재산 관리법은 전문 4장19조, 부칙으로 구성.

○통합종단의 출범(1962.4.11)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의 불교정화에 대한 담화 발표이후 통합종단 출범. 자루했던 식 회원국으로 가입.

○군승장교 5명 임관(1969.11.30) 김덕수 법사등 5명, 군포교의 교두보 마련.

○봉은사 임야 10만3천여평 매각(1970.1.27) 총무원 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봉은사 임야 매각.

○제1회 불교미술공모전 개최(1970.7.13) 한국 문화에 기반이 된 찬란한 불교미술을 살피고 미래지향적인 불교문화설립의 취지로 불교미술 공모전 개최.

○삼귀의·사홍서원 찬불가 제작(1971.5) 공모전에서 최영철씨의 곡이 선정됨. 의식 찬불가의 양산 계기.

○불교성전 출간(1972.11.30) 쉬운 불교에로의 접근을 위해 동국 역경원에서 출간.

○한국 불교학회 창립(1973.9.7) 불교학계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설립.

○월간잡지 '불광' 창간(1974.11.1) '법시' '법륜'등과 문자포교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

○부처님 오신날 공휴일 제정(1975.1.14) 서옹대종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 구성, 용태영 변호사가 앞장.

○대한불교 진흥원 설립(1975.8.16) 설립자 대원 장경호 거사.

○김대심 종권탈취 기도(1975.12.26) 조계종 종단 최초의 종권쿠데타.

○조계종 3년 분규(1977.7) 조계사와 개운사로 종단집행부 양분.

○10·27 법난(1980.10.27) 3년 분규이후 통합되어 월주 총무원장을 선출한후 자율정화의 움직임 과정에서 일어난 군의 불교유린사건.

○단일계단 수계산림 실시(1981.2.27) 불교계 최초로 조계종단 차원에서 수계식 거행.

○비상종단 출범(1983.8.6) 신흥사 주지 싸움으로 인해 종단이 혼란에 빠짐.

○민중불교운동연합 발기(1985.5.4) 민중불교의 개념이 확립되며 불교 민중운동의 싹이 틈. 여익구씨가 초대회장.

○해인사 전국 승려대회(1986.9.7) 2천여 승려 운집. 10·27 규탄 및 관계 악법 철폐요구.

○금산사 대적광전 방화소실(1986.12.6) 보물 476호. 불상, 오백나한등도 함께 소실, 성보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경승단 발족(1987.1.24) 경승활동의 시작으로 불교사회운동의 영역확대.

○전통사찰보존법 제정(1988.5.28) 불교재산관리법의 폐지로 새로이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

○한국불교전서 완간(1989.11.25) 한국불교학 연구분야의 최대성과로서 한국전통사상의 재확립과 연구의 초석 마련.

○중앙승가대 각종 학교인가(1990.2.28) 승가교육의 새로운 형태 갖추기 시작.

○선우도량 결사(1990.3.7) 청정승가상 확립과 구세정신을 기반으로 한 소장승려들의 결사.

○불교방송 개국(1990.5.1) 세계 초유의 불교방송이 개국됨에 따라 전파포교의 막이 올랐다. 가청권은 당시 서울·경기 일원.

○제17차 세계 불교도대회 개최(1990.10.22) '화해와 인류평화'를 주제로 열림.

○남북불교지도자 LA 연석회의(1991.10.29) LA에서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 불교지도자들이 만남.

○성철 큰스님 입적(1993.11.4) 모범적인 수행상을 보인 스님의 입적과 수행담은 연일 국내 최대 뉴스로 보도됐다.

○범종단개혁추진회(1994.3.23/4.13) 서의현 총무원장의 3선을 저지한 개혁세력이 종단개혁 주도.

○불교TV 개국(1995.3.1) 영상포교의 대전환 마련하는 계기가 됨.

건강을 지키는 — 동아제약
타우린 1,000mg 함유
자원재활용을 위해 병뚜껑을 금속테두리가 남지않는 Split Cap으로 교체했습니다.
왜 박카스는 피로회복에 좋은가?
박카스 한병에는 타우린과 카르니틴 그리고 5종의 비타민 B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효능·효과 : 육체피로, 자양강장 허약체질
●용법·용량 : 성인 1회1병(100㎖), 1일1회 복용.
●표준소매가격 : 1병 330원
타우린함유 박카스 에프
의약품

방송가 소식

btn, 가을프로 개편

불교텔리비전은 내달 3일부터 방송시간 연장 및 일부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0분부터 11시10분까지 방송되는 '우리도 부처님같이'가 신설되고 5분명상 산책프로그램 '길에서 길을 묻는다'는 폐지된다.

또 '퀴즈특급 이뭐꼬'가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나의 삶 나의 불교'가 토요일에서 금요일 같은 시간대로 변경된다.

한편 불교텔레비전은 매일 30분씩 늘려 현재 1주 총 64시간 방송에서 67시간 30분으로 방송시간을 연장한다.

보리방송 문화상 공모

사단법인 불국토와 보리방송모니터회가 제 3회 보리방송문화상 대상작을 모집한다.

95년도 제작방송된 불교문화및 불교사회관련 프로그램으로 일반TV부문과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제출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문의는 712~5812-3

밀교 수행영화 '유리' 제작

밀교의 수행과정을 소재로 해 인간의 욕망과 속성 그리고 운명을 다룬 영화 '유리'(감독 양윤호)가 하명중 영화제작소에 의해 오는 16일부터 촬영에 들어간다.

연기·감독·촬영 ·음악을 모두 20대가 맡아 화제가 되고있는 '유리'는 6개월동안 감독과 배우들이 모두 모여 매일 밀교와 선종불교를 토론하며 준비해온 작품.

특히 승려역의 박신양씨와 이은정양은 3달전부터 삭발을 하는 의욕을 보여주고 있어 영화계에 신선함과 독특함을 주고 있다.

캠프화이어에 불심 익는다

청소년 극기수련대회·불교문화캠프 동행 취재기



◇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진행된 하계극기훈련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발우공양 장면.

극기수련 **"빡빡한 일정 힘들었지만 회향땐 가슴 뭉클"**

"유적답사 통해 성보관리 중요성 새삼 느껴" 문화캠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가 마련한 95전국청소년 하계 극기대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2백여 청소년이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라는 깃발 아래 모여 체력단련과 정신력 쌓기로 더위를 이겨냈다. 지치고 허기진 속리산 등정, 무릎에 피가 맺히는 1보1배와 사경, 강의, 공동체 놀이…, 새벽 5시 아침예불에서 밤11시 취침까지 '눈코 뜰새 없는' 일정 속에 말겨 버린 몸과 마음은 고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청보리들은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라면서도 강의 시간에는 연신 하품을 해대는 천진함을 보여줬다. 올해로 3년째 극기대회에 참가 했다는 인천 가정중 3학년 추소영양은 "극기훈련, 사경, 발우공양 등 힘든것 투성이지만 회향때는 언제나 내년에도 또 와야지 하고 생각해요"라며 여름 극기훈련의 묘미를 설명했다.

청교련의 이번 극기훈련은 정신력 배양과 친구 사귀기, 불심함양, 세계를 알기 등에 포커스가 맞춰졌으며 참가한 청보리들은 "편하게 사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며 어른스런 표정들을 지어보이며 마지막날 밤의 캠프화이어를 아쉬워했다.

"졸지 않고 언제나 깨어 있겠습니다. 쉬지 않고 언제나 정진하겠습니다…"

대표선재 이승엽군을 비롯한 3백80여명의 선재들은 4일간의 캠프 생활에 들어가기전 부처님께 용맹정진을 다짐했다.

지난 4일 경주 보문단지 야영장에서 열린 청소년불교문화캠프에는 중·고등학생 외에도 1백1명의 지도교사와 10여명의 스님까지 참가해 무더위를 녹이는 불심을 보여줬다.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박광서 남지심)가 주최한 이 문화캠프의 케치프레이즈는 '부처님 세상 경주로, 21세기 화랑들과 함께'.

유적답사와 공동체생활을 통해 건강한 정서와 불심함양을 목적으로 한 이 캠프에 참가한 불자 청소년 지도교사들은 입제식에서의 서원을 되뇌이며 더운 여름을 이겨냈다. 이들은 담없고 지붕없는 박물관 경주 일원을 6개의 행선지로 나누어 순례하며 "우리 문화의 우수함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관리소홀로 인한 성보의 훼손과 환경파괴 현장을 보면서 가슴 아팠다"는 안타까운 기억도 가져야 했다. 목이 쉬고 입술이 부르트는 등 '외박'의 고통은 지도교사들도 함께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교사와 젊은 선재들은 마지막 저녁의 '캠프화이어'에서 짧은 수행의 고통을 불꽃으로 날리고 '나보다는 남을 위하고 우리 것을 아끼는 마음'을 가슴 깊이 새겨 넣었다.

도필선·이윤호 기자

"이달내 인사문제 마무리"

BBS 이사회서 결의

불교방송 이사회가 지난달 29일 15층 대회의실에서 15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관세칙개정건 △지방국 설립및 운영세칙개정안 △이사선임안 △사장직무대행건 △재단감사 보고건 등의 5개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강한필사장에게 8월말까지로 시한을 정해 김재진, 이태호국장, 이정부장을 징계토록 요구하고 이문제를 일단락 짓지 못할경우 직무대행을 자동해임키로 결의했다.

또 시행세칙개정안 사무국운영 제 8조8항에 '지방국 감사조항'을 삽입하고, 이사선임건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의 이사참여문제와 관련 '법인 정관에 명시된 당연직이사이므로 반대할 수 없다'는 이사들의 의견이 집약됐으나 조계종 종헌종법의 겸직금지조항에 위배돼 이사장 종하스님에게 일임키로 했다.

창종 50년 사업단 발족

진각종, 종의회의

진각종 종의회(의장 혜일정사)는 지난달 27일 제299회 임시종의회를 개최, 창종 50주년 기념사업단을 발족하는등 종단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종의회에서는 신임 부장 인준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됐고, 대지매입의 건으로는 신광정밀, 월배부지, 김천부지 매입의 건이 통과됐다.

한편 총인원의 증개축의 안건은 부지확보문제로 인해 유보됐다.

부산교구 본당 기공

총지종, 내년 8월 완공

불교총지종 부산교구 정각사(주교 정정심)본당 신축 기공식이 지난 1일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됐다.

기존 본당 건물을 헐고 신축되는 본당 건물은 총대지 면적 8백33평, 연건평6백60평,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은 종무실, 2층 자성학교(불교학교), 3층 서원당등으로 사용되게 되며 내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날 효강통리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가 흥하면 나라도 흥한다"며 "신축 정각사가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전파하는 중심도량이 되길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총무원장 선거법 검토

법화종 종헌개정 공청회

법화종 부산교구는 지난 5일 금어암(주지 월강스님)에서 부산지역 사찰 주지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헌종법 개정심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총무원장 선거법, 총무원 각부장 임명권, 법계품수 개·조정, 포교원법 강화, 별정교구 신설등을 논의했다.

특히 총무원장 선거법은 중앙종회의원들로만 선출하는 방식에서 탈피, 종회 재적의원 전원과 종회의원이 있는 교구에서 선출하는 합동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불교문화센터 12기 내달 1일 개강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 개설, 운영되고 있는 불교문화센터가 1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12기 강좌는 내달 1일 개강해 11월 31일까지 개설된다.

불교강좌는 반야심경강의(혜담스님) 선사열전강의(혜거스님) 화엄경 십지품강의(최봉수교수) 생활선(혜원스님) 불교문화재교실(황의수선생) 불화그리기(박정자선생)등이 개설된다. 또 우리가락배우기, 노래부르기, 수지침, 요가등 총 48개 강좌가 다양하게 개설된다. 703~0108

BBS '바로보는 불교역사' 방송대상 특별상



◇ 조은정 PD

불교방송의 봄철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신설된 인기프로 '바로보는 불교역사'(월,화 14:10~15:00)가 한국방송협회주관 제22회 한국방송대상 라디오교양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바로보는 불교역사'는 불교가 우리역사에서 큰줄기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거치지 않는채 왜곡되어지는 현실을 시원하게 되짚어보는 프로로 전문가의 의견과 역사현장 취재, 꽁트,드라마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담당PD 조은정씨는 "스탭진들이 심혈을 기울여주었다"며 "수상소식을 듣고 더욱 열심히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불자 원로배우 장동휘씨 아·태영화제 남우주연상



◇ 장동휘씨

불자원로 영화배우 장동휘씨(76세 전 안산불교신도연합회 회장)가 지난달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폐막된 제 40회 아시아·태평양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장동휘씨는 현존배우중 최고령일에도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해 대종상 특별남우주연상을 수상한데 이어 국제무대에서도 그 성격파연기력을 인정받아 이번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됐다.

독실한 신심만큼 불교활동에도 열심인 그는 "더욱 정진하여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가 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목탁소리

청소년 자원봉사

이 은 자 〈취재1부 기자〉

지난 5월31일 교육개혁에 따르면 오는 96년부터 교과성적과 함께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예정이다. 여기에 서울시 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 신학기부터 중학교 1년생들에게 연간 40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교계에서도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지난 1~10일까지 '95여름 서울 청소년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양로원, 병원, 복지관, 등 곳곳에서 1백70명의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이 15명의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의 통솔아래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처음 해보는 자원봉사라 청소년들도 지도자들도 서투른 점이 많았지만 열심히 봉사활동에 임했다. 그러나 불교자원봉사연합회와 관련복지시설 그리고 종단, 그의 관련단체간의 원활한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봉사처 선정의 문제, 지도자 양성 문제등의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최근 문화체육부는 학생 청소년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할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를 내년부터 중앙 및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 본격적인 자원봉사체계를 갖추기로 발표함에따라 내년부터 전국에서 청소년 자원봉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여기에 불교계도 일찍부터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의 의미와 방법을 가르치고 적합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요자와 연계시키는 업무를 전담할 '불교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모든 작업들을 내년 여름이 오기전에 해내기 위해서는 종단과 사찰 각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학교등이 함께 협조해야 한다. 내년 여름 우리의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봉사도 못하고 여름방학을 신나게 놀지도 못한채 어정쩡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광복절 하일라이트

btn ch32

광복 반세기 불교 50대사건

광복50년 불교50대사건 (15일 11:10~13:10) 50년의 흐름속에서 한국불교가 겪어온 일련의 크고작은 사건들을 증인들의 생생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검증하는 역사다큐멘터리.

한국불교의 어제와 내일

한국불교 50년의 명암 (15일 15:10~16:00) 불교텔레비전 홍사성 제작국장 목정배교수 박경훈 법보주필을 초청하여 50년 한국불교계를 재조명해 본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개화파 핵심 이동인 스님

사라진 개화승 이동인 (13일 14:00~15:00) 조선말기 한국개화파의 핵심인물들에게 근대적인 문물과 제도 사상을 전해준 이동인 스님을 찾는 5부작 다큐멘터리.

독립투사 양성 섬 '소안도'

해방의 땅 소안도 (15일 17:10~18:00) 일제강점 35년동안 끊임없는 독립투사를 양성해 동양3국에 내보낸 소안도의 역사 해방의 역사를 함께 해본다.

해방의 교훈과 통일의 과제

뚜껑없는 작은 역사책 (15일 20:05~20:55)설산스님을 초대하여 일제시대의 역정과 해방의 교훈, 통일의 과제등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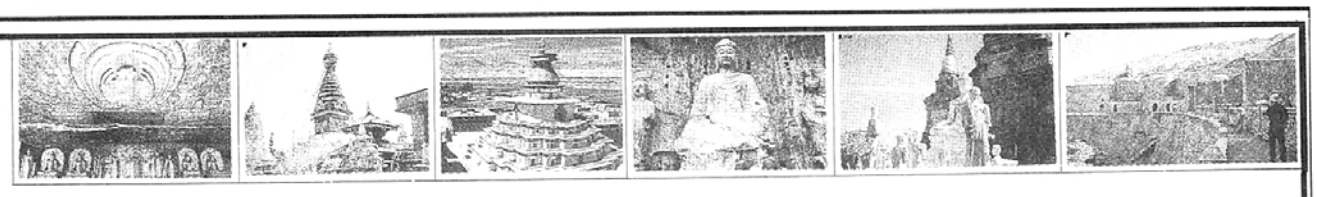
MBC

채시라 '최승희 보살춤' 재현



특집 최승희 (14,15일 21:50~23:00) 세계를 감동시킨 보살춤의 대가 최승희의 춤과 인생을 다룬다.

최승희역은 불자탤런트 채시라씨가 그때 상황 그대로 보살춤을 재현할 예정이다.



불교 성지 순례

실크로드 대장정 2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 출 발 : 8월 28일
· 동참금 : 295만원
· 일 정 : 서울—북경—서안—난주—가욕관—돈황—투르판—우룸치—카슈가르—쿤자랍고개—훈자—길기트—스왓—페샤와르—탁실라—이슬라마바드—라호르—방콕—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 출 발 : 8월 25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벳·네팔 9일
· 출 발 : 8월 27일
· 동참금 : 210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성도—라사—쟝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인도·네팔 성지 순례 10일
—불교 7대 성지와 네팔의 불교사원 순례—
· 출 발 : 9월 27일, 10월 26일
· 동참금 : 160만원
· 일 정 : 서울—델리—바라나시—사르나트(녹야원)—부다가야—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사윗성—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엠부넛 등)—서울

중국불교유적지 13일
· 출 발 : 8월 29일, 9월 19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 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 출 발 : 9월 16일
· 동참금 : 100만원
· 일 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 출 발 : 8월 27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 출 발 : 9월 20일
· 동참금 : 65만원

■ 여행조건 ●호텔: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경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신행도 카드 한장으로 '척척'

보문종, 신도·종무관리 활용…가맹점 운영도 검토

교계 처음으로 신도카드를 이용한 사찰관리전산화 시대가 열린다.

보문종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종무행정 전산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준비해오고 있는 사찰관리시스템을 오는 21일부터 서울 보문사(주지 법준스님)에 설치, 실험단계를 거친후 연차적으로 각 말사까지 보급해 약 35만명의 전국신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

신도증가로 인한 관리의 부재,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산관리체계의 주요내용은 △신도의 교직관리 △재무관리 △출력업무(축원문, 발송업무, 각종 결산)등이 입력돼 있다.

이밖에도 각종 정기·특별법회의 참석유무, 인등비 납부 현황 등이 입력돼 있어 신도들에게 지급된 신도카드를 이용,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사찰, 신행단체의 법회 참석률, 연령·직업·지역별 신도분포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신도의 교육은 물론 포교활동에도 활용하게 된다.

한양시스템(대표 우제수)과 공동으로 사찰관리 프로그램을 준비해 온 보문종 손동일 과장은 "그동안 수많은 신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점차 신도 수가 줄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도들에게 소속감을 갖게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복잡한 종무행정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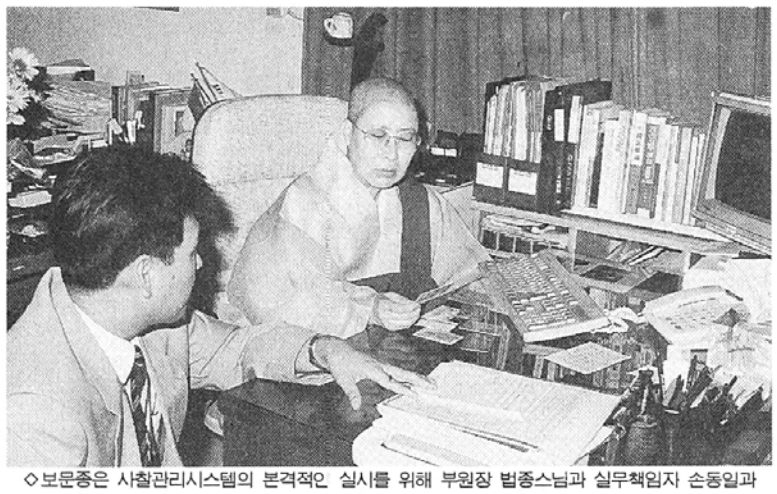
또한 향후 개인카드를 이용한 관리체계가 본격화 되면 신도명부 작성은 물론 신도들이 운영하는 상점에 가맹점을 설치, 사찰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생활속에서도 신도들간의 교류를 지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전산화 작업을 적극 추진해 온 보문종 부원장 법종스님은 "인력난 해소와 효율적인 신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을 보안 신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한편 모든 업무체계의 검색과 집계가 용이하다는 이점도 지니고 있다.

보문종이 추진하고 있는 개인카드를 이용한 사찰관리시스템이 앞으로 각 종단을 비롯 불교단체에 활용한다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찰운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중근 기자〉



◇보문종은 사찰관리시스템의 본격적인 실시를 위해 부원장 법종스님과 실무책임자 손동일과장이 신도카드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쩍새마을' 정상화 초읽기

법인설립 자산기부 공증 마쳐…복지사 채용

중앙승가대학의 소쩍새마을 인수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승가대학과 소쩍새마을 관계자들은 지난 4일 "소쩍새마을 자산을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한다"는 공증절차를 마쳐 법적처리를 마무리했다.

이에따라 중앙승가대학은 소쩍새마을 정상화에 나서는 한편 복지법인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소쩍새마을 임시원장 각밀스님(중앙승가대 교학국장)은 "소쩍새마을 원생들의 보건문제가 시급해 1차 검진을 마쳤다"고 밝히고 "후원자들의 의혹을 풀기위해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승가대학은 소쩍새마을 정상화를 위해 간호사, 영양사 등의 복지사를 채용하고 주거환경 개·보수에 들어갔다.

월정사 말사 주지연수

금산사·통도사·불국사도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소임자 및 말사 주지연수회가 오는 17~19일 월정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수는 17일 월정사 주지 현해스님 특강, 18일 신도조직 관리(지홍스님) 현대사회의 수행과 포교(도법스님) 미래의 전망과 승가의 역할(법성스님), 19일 불교성보관리(신영훈) 지역 사찰의 사회복지사업(이용권) 등 강의와 본말사 주지스님들의 간담회가 있게 된다.

한편 금산사는 8월23~25일, 통도사 29~31일, 불국사 8월30~9월1일까지 각각 2박3일의 말사주지 연수회를 갖는다.

망실토지 9천6백여평 호압사 또 되찾아

삼성산 호압사(주지 원욱스님)는 최근 또 다시 9천6백여평의 망실 사찰토지를 되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각고의 노력끝에 1천5백여평의 사찰토지를 되찾았던 원욱스님은 당시 정부문서기록보관소에서 아직도 9천여평 이상의 토지가 미등기로 남아 있음을 확인.

이에 따라 원욱스님은 5개월여의 노력끝에 내무부와 구청을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9천6백여평의 망실토지재산등기소유를 국가로부터 최종 인정받았다.

을해년 하안거 해제

불기 2539년 하안거 해제가 지난 11일 전국 사암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은 하안거 해제법어를 통해 "물가엔 사람없고 세찬 바람만 불 뿐이요, 돌창을 베개하니 궂은 장대비로다"고 설했다.

"이웃아픔 함께하는 정토 만들자"

조계종, 자원봉사단 발족…23~25일 관리자 연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이 오는 23~25일 '자원봉사관리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이와함께 자원봉사단을 발족한다.

이번 자원봉사관리자 연수교육은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 보여줬던 불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계기로 기존의 자원봉사조직을 더욱 강화, 조직화된 종단의 활용가능 자원을 교육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가칭)대한불교조계종 자원봉사단을 결성, 활용하기위해 실시된다.

이와함께 25일에는 '불교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전국의 주요사찰 스님 및 사무장 50여명과 불교관련 사회복지시설단체 관리자, 기존 자원봉사활동단체 임직원등 지원자를 대상으로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실시된다.(02)723-5101

두송사회복지관 개관 장애인 복지사업 역점

사단법인 불국토가 위탁운영하는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현스님)이 이달 24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2동 복지관에서 공식 개관식을 갖고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펼치게 된다.

개금사회복지관에 이어 (사)불국토가 부산에서 두번째로 위탁운영하게 되는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대지 2백72평, 연건평 6백18평, 지하1층, 지상2층 현대식 건물로서 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복지 등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종합상담실 △취업정보실 △직업보도사업 △취미기능교실 △무료급식제공 △장애인서비스 알선 및 이송 △출판 및 홍보사업을 벌이는 것 외에 부설 '다정한 어린이집' 등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성철스님 탑 방송관련 MBC 정정보도

최근 MBC뉴스에 방송됐던 '성철스님 사리탑 현상설계공모 절 시비'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7월30일 'TV속의 TV' 프로를 통해 "당시 방송보도는 당사자인 건축가 우경국씨의 작품성에 대해 충분한 반영없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6월14일 뉴스데스크 카메라출동을 통해 "성철스님사리탑 설계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우경국씨의 작품이 일본건축가의 작품을 모방했다"고 보도, 이에대해 우씨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독창적인 창작물이다'며 중재를 신청해 MBC가 정정보도를 했다.

도리사 사적비 道문화재로

경북 선산군 해평면 송곡리에 위치한 해동 최초의 가람 도리사 경내에 있는 아도화상 사적비 및 도리사 불량답 시주질비가 최근 경북도 문화재로 지정됐다.

아도화상 사적비에는 아도화상이 신라에 불교를 전한 사실을 음각으로 새겨놓았으며, 불량답 시주질비에는 도리사에 불량답을 낸 시주와 전답의 양을 새겨놓았다.

선우도량 수련결사 종단 교육방향 논의

선우도량(상임대표 도법스님)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지리산 실상사에서 '미래사회에 대비한 종단교육의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제9회 수련결사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결사는 법정스님(맑고향기롭게 운동본부 회주)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현응스님(해인사 홍제암)이 '미래사회를 대비한 종단교육과 당면과제'를 지운스님(송광사 강주) 금정스님(중앙승가대 기획실장)이 지방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의 발전 방향에 대한 '종단기본교육기관의 균형적인 발전 방안과 역할'을 발표한다.

한편 이번 수련결사에는 박세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도 참석, '사회교육제도의 동향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특강을 통해 바람직한 교육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주에 불교문화단지 국내최대…2천년까지

오는 2천년까지 경주에 국제규모의 불교민속문화연구단지가 조성된다.

경북도가 지난 3일 마련한 장기 문화개발계획에 따르면 경주시는 세계적인 불교성지라는 점을 감안 불교문화 전시관 및 연구소를 세운다는 것. 따라서 단순한 관광위주 도시에서 벗어나 국제 불교문화 연구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은 국립의료원 자원봉사실 등에서 각종 봉사를 통해 봉사의 참의미를 되새겼다.

청소년 '방학봉사' 체험 현장

"공동체 삶의 참의미 배웠어요"

"할아버지 맛있게 잡수세요."

"반찬 더 드릴까요."

미아6동 경불련 자비의 집 무료급식시간 . 6명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처럼 자원봉사를 나온 보살들 틈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파다듬기, 반찬나누기, 식사배급하기,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등의 일들을 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곳 자비의집에서 다른 청소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7~10까지 4일간 봉사활동을 펼쳤던 강지영양(인수중 1년)은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는 일은 늘 집에서 접하던 것이라 그다지 낯설고 힘들지 않아요. 재미있어요"라고 말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 주관, 조계종 복지재단 후원으로 지난 1~10일 실시된 '95여름 서울 청소년 자원봉사 현장의 모습이다. 양로원, 어린이집, 소년원, 병원, 무료급식소, 복지관, 도서관등 10여곳의 봉사처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친 청소년들이 무려 1백70명이나 된다. 자원봉사에 앞서 1~3일에는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 4~6일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자 사전교육이 각각 실시되기도 했다.

지난 5·31 정부의 교육개혁안 발표와 더불어 96년부터 학교성적외에 자원봉사활동을 내신성적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올여름 사회복지시설 곳곳에는 자원봉사를 하려는 청소년들이 몰려들었다. 이전부터 보살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해온 불교자원봉사연합회도 이런 사회적 현실에 대비해 우리의 불자청소년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 95청소년 자원봉사를 실시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전개한 자원봉사활동은 전문적인 것 보다는 일상적이고 간단한 일들이었지만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은 그같은 봉사를 통해 자원봉사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생활주변의 일들이란 사실을 새로이 깨달았다.

청소년들은 이번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배웠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일부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조 미비, 청소년 지도자 부족 등 드러난 몇가지 문제점들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은자 기자

구룡사 만불전 회향 '1백일간 사경'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주지 정우스님)는 만불전회향원만 성취기념 사경정진대법회를 8월15일부터 11월22일까지 백일간 갖는다.

법회는 오전 9시 기도정진, 10시30분 만불명호경 사경, 12시 108배 대참회 정진 3회의 순으로 백일간 사경과 함께 총 3만배 정진을 실시한다.

학사운영방안 협의

중앙승가대 24회 이사회

중앙승가대학(이사장 월주)은 지난 7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24회 이사회를 갖고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흥천사 토지문제에 대한 보고와 함께 비구니 기숙사 건립, 본관 4·5층 증축에 따른 재산·증자 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홍스님(신흥사 주지)을 감사에 선임했다.

범어사 아파트 새국면 쌍방 가처분신청 '주목'

공사중지 가처분과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을 각각 범어사와 경동건설측이 제기한 가운데 범어사 주지 정관스님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연이어 공사현장 포크레인 앞에서 아파트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관스님은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약속한 경동건설의 공사재개는 문제해결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에대해 지난 5일 농성장소를 방문한 경동건설 김재진 사장은 현장공사를 계속 방해한다면 범어사에 관련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범어사와 경동건설의 광괭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범어사의 한 관계자는 쌍방이 제기한 가처분신청건에 대한 현장 실사가 오는 21일 판사 입회아래 공사현장에서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판례·문답집' 11월 발간

조계종, 재산 손실 방지위해…사례 모집중

불교관련 판례 문답집과 불교관련 판례 전체 모음집이 각각 발간된다.

조계종은 총무원과 본말사 및 스님이 제기했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판례를 집대성하고 이들 판례의 근거법령에 대한 사례문답을 통해 사찰에서 국가법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법령, 이렇게 알고 활용하자-불교관련 판례·문답집」과 「불교관련 판례 전체모음집」을 오는 11월말 발간 예정으로 각 사찰을 비롯 개인과 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을 모집하고 있다.

판결자료, 법원공보 등을 통해 수집한 판례 약 2백여건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조계종 기획국장 정빈스님은 "그동안 종단에서는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인식의 미비로 말미암아 사찰재산이 손실되고 소송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많은 비용과 인력의 낭비가 있어왔다"고 밝혔다. 또 "사찰의 일상활동에서 발생하는 재산상의 문제, 각종 분규 등에 대해 합리적인 관리능력을 배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 건축 전통사찰 문제등 소관 행정관청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것도 절실한 문제"라며 판례집 발간 의의를 설명했다.

정신대할머니 보금자리 마련

14일 광주군 퇴촌면에 '나눔의 집' 기공

광복50주년을 맞아 정신대 할머니들의 편안한 보금자리가 될 나눔의 집 착공식이 오는 14일 오후 2시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원당리에서 거행된다.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시현스님)는 지난 2일 경기도 광주군으로 부터 나눔의집 건립을 위한 대지 4백90평 전용허가를 받음으로써 총 1백60평, 3개동 2층 양옥 규모의 나눔의 집을 건립하게된다.

지난 92년 3월 정신대할머니들의 생활공간마련을 위해 불교인권위원회에서 구성된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원회는 기금모금활동을 시작, 그해 8월 한독지가로 부터 나눔의 집 건립터 6백50평을 기증받았다.

이어 10월에는 마포구 서교동에 나눔의 집을 개설하여 김순덕 할머니등 7명의 할머니를 모시고 한글과 그림수업등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종로구 혜화동에서 7명의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3년동안 꾸준히 정신대문제 진상규명과 일본정부의 사과요구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나눔의집 건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 가수 이선희씨등 많은 이들의 동참으로 2억여원의 기금을 마련했으나 나눔의집 완공때까지는 더 많은 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뜻있는 불자들의 후원과 정성을 기다리고 있다. (02)744-9223

수입식품 불매운동

환경교육원·자원봉사연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청소년자원봉사자와 함께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종로2가 제일은행본점 앞에서 수입식품의 선통과 후검사, 유통기한 연장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은 3일동안 수입식품의 문제점을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는 한편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울시 문화재관리소 신설 추진

서울시는 지난 4일 문화재의 보존관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문화재관리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문화관광국은 "구청별로 관리하도록 된 문화재관리를 전문화하면서 일괄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조순시장에게 보고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성철스님 사회영향력 1위

광복이후 50년동안 한국사회 사회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성철스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SBS가 '광복 50년 50대 사건'(15일 오후 6시)을 제작하면서 서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서 성철스님이 24.2%로 사회분야 1위를 차지했다.

故 김법린씨 '독립장' 받아

정부는 지난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아 故 김법린 전 동국대 총장에게 독립유공자 독립장을 추서했다.

승가대 부·경후원회 창립

9월15일 기공식을 갖게되는 중앙승가대학 부산, 경남 후원회 창립법회가 지난 9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봉행됐다.

중앙승가대 관계자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자문위원과 운영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삼풍사고 조속처리 촉구

굉불협, 경불련등 교계 4개단체를 비롯한 17개 시민단체는 지난 8일 삼풍참사 실종자 사망처리 등 조속한 사고수습을 촉구하는 촉구문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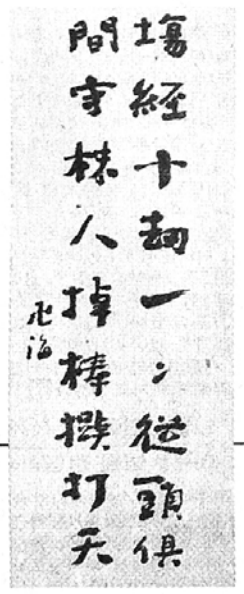
위 단체들은 촉구문에서 호적법 제90조 인정사망제도와 유전자감식을 최대한 활용,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순직장교 시신에서 사리

순직한 육군장교의 시신에서 영롱한 사리가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일 훈련중 과속차량에 치여 숨진 육군 맹호부대 포병 여단 이정호중위의 영결식에서 화장이 끝날무렵 사리가 발견됐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맹호부대는 참모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리탑 건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중순경 부대 법당 앞에 부도탑 봉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만해스님이 쓴 한시 일부.

만해스님 삶·시·학문 "추모"

독립운동가, 시인, 불교학자로 평생을 살다간 만해 한용운스님을 기리는 제1회 만해제가 지난 11,12일 충남 홍성 만해생가 등 4개지역에서 열렸다.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만해제추진위원회(위원장 황규철 홍성문화원장)가 주최하고 홍성문화원과 만해학회(회장 한계전 서울대교수)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만해의 밤, 추모제, 만해 특별기획전, 만해시낭송회 등으로 진행됐다.

11일 저녁7시부터 홍주문화회관(홍성군 오감리)에서 열린 만해의 밤에는 원로시인 박두진 조병화씨와 시인 정진규 신달자씨, 평론가 김용직씨 등과 젊은 시인 20여명, 만해시사랑회원 10여명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12일 오전 열린 만해 추모제에서는 사당 현관식에 이어 추모시 낭독과 김용직교수(서울대)의 '만해의 문학세계', 허우성교수(경희대)의 '만해와 성철' 강연이 있었다. 홍성문화원 전시실에 마련된 만해특별기획전은 만해사상연구소장 전보삼교수(신구전문대)의 소장 유품·자료 1백여점이 12~25일까지 전시중이다.

한편 서울 성북구청도 14일 저녁에 성북동 심우장에서 만해시낭송회를 가졌다.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생성과 소멸

생·멸원리는 존재의 아름다움

남들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예술가나 화가니 하면서 부러워 하지만 그들은 고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원시미술에서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화가들의 이야기는 한번도 같은 시대가 없었다.

그러기에 창작세계라 하는지도 모른다. 객관적이어야 하면서도 주관을 감조 해야 하는 세계,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이어야 하는 세계가 미술의 창작세계이다.

어쩌면 예술은 종교적 시각과 동일한 시점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모든 종교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구체적 세계와도 같은 세계, 부가 가치가 가장 높은 세계, 바로 영원한 존재 미학의 추구이다.

그것이 종교이자 예술이요 철학인 것 같다.

동양적 사고로 그것을 본다면 '氣' 사상이다. 속담에 '기 죽으면 싸움에서 죽는다'는 말이나 '기가 막혀 죽겠다'는 말이 있다. 유, 무형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가 생명의 기, 존재 가능의 기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살아 있다는 것은 기가 있다(有)는 것이다. 그래서 기는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은 삶의 근본이다. 고로 '기=생명=삶'이라는 등식을 생각해본다. 절대 미학이라 할 수있다. 그 기의 원천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自性) 혹은 본성(本性) 등과도 통하는 것일게다. 생멸 이전의 존재, 그 절대적인 존재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이 곧 인간과 우주 만물의 근원을 밝혀내는 작업일 것이다. 나는 이것들에 대한 관심속에서 나의 예술의 속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존재는 영원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소멸을 해야하는 원칙도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 생성과 소멸의 존재원리가 과학될 때 영겁의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승계일 〈한국화가〉

주부신행담

한 생각 돌리고 나니 ㊦



나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픈 말이 있다
"마음이 항상 봄이면 생활도 늘 봄입니다"

열심히 법문을 들으러 다니는 내 생활은 차라리 공부에 가까웠다. 법문의 뜻을 잘 알 수 없을 때에는 요전을 보며 그 뜻을 알고자 노력했고, 그런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부딪힘은 차츰 나를 수행케하는 디딤돌이 되고 있었다.

법문과 요전속에는 처음 상상과는 다른 너무도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 그전에 막연히 느꼈던 '왜 나는 나인가?' 하는 의문도 나름대로 풀리기 시작했다. 독선적이라고 느꼈던 내 남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고, 내 기대에 차지 않던 자식들하며 냉소적이고 잘난척하던 친구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다.

결국은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모두 내 스승이며 바람 한 점,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 우주 전체가 스승 아님이 없음을 배우게 된 것이다.

자연적으로 내 태도는 전보다 눈에 띌만큼 부드러워졌고 그런 나를 대하는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에서도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온화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각대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바뀌지는 않았다. '그렇지, 모든 경계가 주인공의 나툼인데 속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오랜 습을 고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처피 열려한 부분이었지만 생각보다 남편의 고집은 쉽게 꺾이질 않았다. 마음공부를 한다는 구실이 발근하는 성질을 죽이곤 했지만 모든 것을 양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남편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바꾸라고 일러주었을 때 남편은 오히려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당신은 그걸 고쳐야 돼"라고 공격하는 것이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도 않고 남의 잘못만 눈에 보이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남편의 잘못을 고집다가는 다시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떠올라 말싸움을 멈추곤 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제법 나이가 들었다고 내 말에 순종적이기 보다는 반발하는 횟수가 많아졌고 심지어는 나를 비판하고 나서는 일까지도 잦아졌다. 자식이 상전이라는 말이 참으로 실감나기도 했다.

내가 처음 변하기 시작했을 무렵의 온화했던 가족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무리 처음부터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족들은 내가 노력하는 최소한의 성의마저도 무시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답이 떠오르질 않았다.

몸과 마음이 차츰 지쳐가던 어느날, 우연히 아이들의 책상을 정리하다 일기장을 보게 되었다. 아이의 일기장 속에는 독선적이고 원칙론적이며 자기 욕심만을 앞세우는 이기적이고 냉정한 한 여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아이는 그 여자의 과욕과 이기때문에 마음에 시커먼 멍이 든채 힘든 나날을 계속하고 있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기장의 그 여자, 바로 나때문에 아이들은 항상 우울해하고 가정에서 포근함을 느끼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나라는 존재는 늘 내 속에서나 착하고 올바른 인간이었을뿐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들의 눈에 조차도 인간미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부처님께 의지하는 수 밖에 없었다. 내 크나큰 잘못을 바르게 인도해 줄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내 자식이라는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근본자리에 맡기고 다 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나의 습을 녹이기 위해 참된 마음으로 정진을 계속했다.

진정한 마음공부는 바로 이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의욕이 세차게 일었다. 처음 깨달았던 나를 속이는 깨달음이 아닌 진정한 자비심을 배우고 싶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고 전에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한 마음의 생활이 내 앞에 열렸다. 주위 사람들도 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얼굴이 밝고 좋아졌다고 기뻐해 주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몇십년동안 본 중에서 지금이 제일 편안해 보이고 예쁘니 사진을 찍어두자고까지 했다. 모든 것이 이 마음법의 도리를 알게 된 인연이라고 생각하니 한없는 고마움이 느껴졌다.

나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마음이 항상 봄이면 생활도 늘 봄'이라는 것이다. 한 생을 살아 가는데 있어서 이왕이면 향기나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향기마저도 뛰어 넘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겠다는 것이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이끌어준 참나, 나의 주인공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글을 부처님전에 회향하고 싶다.

오계민 〈서울 중계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⑥

♦ "I have no cows. I have no calves," -so said Bhagavat,- "I have no cows in calf and no heifers, and I have no bull as a lord over the cows :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스승이 답했다. 나에게는 송아지도 없고, 젖을 짤 수 있는 암소도 없다. 새끼 밴 암소도 없고 발정기의 암소도 없다. 그리고 이 모든 암소들의 짝인 황소도 없으니 좋다면 비를 내려라, 하늘이여!

♦ "The stakes are driven in, and cannot be shaken," -so said the herdsman Dhaniya,- "the ropes are made of muñga grass, new and well-made, the cows will not be able to break them :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말뚝이 깊게 박혀 흔들리지 않는다. 양치기 다니야가 말했다. "문사" 풀로 엮은 새 밧줄은 잘 꾀어 있으니 송아지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내려라!

♦ "Having, like a bull, rent the bonds ; having, like an elephant, broken through the gaḷukkhi creeper, I shall not again enter into a womb :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Then at once a shower poured down, filling both sea and land. Hearing the sky raining, Dhaniya spoke thus:

스승이 답했다. 성난 황소같이 나는 고삐줄을 끊는다. 코끼리처럼 넘새나는 덩굴풀을 짓밟으며 나는 두번 다시 모태속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내려라!

*muñga 풀의 일종 문사초(文珠草)(베일리어)
*creeper 덩굴식물, 기는 것(곤충따위)
*womb 자궁, 모태

한명우 기자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제품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트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 리스 사용 —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바로 견딜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 전화:0348-945-2233/팩스:0348-945-9607
품&모음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 만불보전 10년 불사 회향

萬佛名號經 寫經 精進 大法會

법회 식순
09:00 기도정진
10:30 만불명호경 사경
12:00 108대참회 정진 3회(만불전 1불 3배 백일간 3만배 정진)

10여 년 전 천막법당에서 시작된 만불전 불사가
佛子들의 信心과 願力으로 대중불교 현장인 생활불교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사 회향 10년을 목전에 두고 만불명호를 사경하고자 합니다.
만 부처님 전에 1불 3배의 참회를 하면서 정진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이루어지고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 인류평화를 발원합니다.



입재 : 2539년 8월 15일(음 7.19)
회향 : 2539년 11월 22일(음 9.30)

老天 獎學金 案內

도심포교당 및 사찰에서 어린이회, 중고등학생회, 대불련 및 청년회의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학인스님 100名을 대상으로 老天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대상: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 지방승가대학 학인스님
2. 제출서류:① 승적증명서 1통
② 재학증명서 1통
③ 학교장 또는 활동하는 사찰 추천서 1통
(중앙승가대는 학장 추천서, 지방승가대는 강주스님 추천서, 동국대는 정각원장 추천서)
④ 1학기 장학금 수혜자는 법회활동 보고서 1통, 추천서 1통(단 승적증명서, 재학증명서는 제외)
3. 조건:학기별 50만원 또는 1백만원
4. 마감:불기 2539년 8월 25일 ※장학금 전달은 각 개인별로 송금합니다.

※老天은 월하중정예하 법호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서울포교당 九龍山 九龍寺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99-1
전화 (02)575-7766, 전송 (02)576-4503